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92 1983년 3월 2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March 28, 1983

MAR 28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온』주 문교성 새 교육계획 발표

"1인당 컴퓨터 1대씩"

89년까지 「온」주 초중고등학생 전원대상

온타리오주 문교성은 24일 오는 1989년까지 주내 전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에 컴퓨터 1대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 컴퓨터 교육방안을 발표하고 컴퓨터교육용 예산으로 1천5백만달러를 투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티·스티븐슨 문교장관은 고든·워커 온타리오주 산업·무역성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문교성은 캐나다 교육 마이크로프로세서회사(CEM)가 문교성의 특별주문에 의해 제작한 컴퓨터를 도입하는 각 스쿨·보드에 가격의 75%까지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EM 마이크로·컴퓨터의 가격은 1대당 $1,800이나 스쿨·보드가 문교성의 보조를 받을 경우 $450정도면 살 수 있다.

오는 8월경 CEM 컴퓨터의 모델이 완성되는대로 문교부는 노스·욕교육위원회 지역의 학교에서 오는 9월학기부터 시험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교성은 금년 여름과 가을에 2백만달러의 모형컴퓨터를 첫 단계로 구입한후 84년까지는 8백만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5백만달러는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의 학교들은 작년도에 문교성의 보조없이 1만대 이상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구입했었다.

관리들은 1989년까지 1년에 약 50만대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교성은 지난 81년 컴퓨터 교육지원계획을 발표, 82년 가을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었으나 온타리오주의 주문대로 제작하려던 많은 컴퓨터회사들이 재정난에 봉착하는 바람에 지연된 것이다.

이번에 문교성의 발주를 받은 CEM회사는 81년 문교성의 발표가 있은뒤 설립된 회사로 동회사는 컴퓨터의 하드웨어(기계부분)의 60%,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부분)의 95%를 캐나다 기술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학교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는 대부분 미국 IBM제품이다.

문교성은 스쿨보드가 비록 문교성의 주문대로 규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CEM회사 제품이 아닐 경우 75%의 자금지원을 제공치 않을 방침으로 있어 미국제품은 곧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CEM회사는 메리디언 테크놀리지(Meridian Technologies Inc.), 노스·아메리칸·벤쳐즈(North American Ventures Fund)및 캠퍼스·콘소티움·콘설턴트(Campus Consortium Consultants)등 3개회사가 합작투자한 회사이다.

고든·워커 산업성장관은 새 컴퓨터 교육도입계획으로 200자리의 고용이 창출되며 CEM회사로는 온타리오주의 교육용 컴퓨터 기술 개발에 발판을 굳힐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티븐슨 문교상

"토론토, 미밀입국 온상지 아니다"

액쉬디 연방이민장관 부인

미국의 이민당국이 "토론토가 미불법이민의 온상지"라고 발표한데 대해 (24일자 본보참조) 캐나다 연방정부 액쉬디 이민장관은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하면서, "확실한 내용과 숫자를 알기전지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사이에서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미국과 협조하여 불법이민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팔로 미이민국 부책임자인 윌리암· 트로스데일씨는 메트로가 카리비안인과 아시아인들의 주요 밀입국알선지이며, 최소$1,200~$6,000의 알선비를 받고 육로로 밀입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불어교육법 선거운동과 무관"

출마설떠도는 데이비스수상 주장

윌럼·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은 주 문교성이 발표한 개정 불어교육법안이 다가올 연방 보수당 당수경합을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일부의 견해를 부인했다.

데이비스수상은 동 개정법안이 발표된 것은 온타리오주 주민의 대부분이 언어법상의 동등권한을 누릴 태세가 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동 법안에 대한 반발에 대비할 태세가 돼있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불어사용 온타리오주 주민대표들과 지난 23일 면담한 것은 이미 수개월전 계획된 것이었다면서 선거와는 무관한 것임을 주장했다.

오는 6월 오타와에서 있을 보수당 연방당수직 경합에는 현재 11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적돼온 온타리오주 데이비스 수상과 알버타주 로히드수상의 귀추가 정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연방 지도자는 영·불어 능통해야 유리하다.

한 소식통은 데이비스 수상이 현재 불어습득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소문의 와중에서 그가 불어교육법안을 발표했다는 점은 그가 연방당수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추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상은 지금까지 연방지도자직에 도전하는 문제에 대해 예스, 노를 밝힌 적이없다.

◆데이비스 주수상

1개월 뒤에나 시행

말썽많은 성인잡지 규제법

성인잡지 규제법은 지금부터 적어도 1개월 뒤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메트로·토론토 면허위원회(Metro Toronto Licencing Commission)의 제너럴·매니저 윌렴·바카씨는 "당장에 입건시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카씨는 지난주 메트로의회를 통과한 성인잡지규제법에 의한 $28짜리 판매허가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각 상점주에 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냈으며 오는 28일 30명의 관계직원들이 각 상점을 순회하며 동법에 대해 계몽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시교위

간식비보급 받아

토론토시교육위원회는 국민학교 학생 간식제공보조비를 2년반동안 연방정부로 부터 약17만달러를 받게 됐다.

토론토시교위는 현재 자선단체인 토론토 교육기회자금(Toronto Educational Opportunity Fund)와 협조, 지역에 26개 학교 학생들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일 다른 메뉴의 간식을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건전한 식사 습관을 기르며, 간식과 관련된 학습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관·KOTRA 합동경제회의

25일 오타와 한국대사관서

(오타와지국)캐나다에 주재하는 3개 한국 공관장및 KOTRA관장의 합동경제회의가 25일 오타와 한국대사관에서 열렸다.

이규현 대사, 신동오상무관, 이상훈 토론토총영사, 김창훈 몬트리얼총영사, 강대완 뱅쿠버총영사를 비롯한 3개지역 KOTRA의 이준식 관장(토론토), 이민주 관장(몬트리얼), 차영석관장(뱅쿠버),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김덕연 차장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는 한·카유대강화및 경제협력관계, 수출증대책등의 현안문제와 북미최초로 상륙하는 포니자동차의 수출대책을 토의했다.

특히 이날의 모임에서는 최근 강화된 캐나다 정부의 한국상품수입규제에 대한 전반 쿼터및 수입규제품의 주종목인 한국산 섬유류와 신발류의 총량쿼터에 대한 분석,그리고 심화된 덤핑수입품목 6개품종(철강재 3개품, 스텐레스스틸 2개품, 타이어 인너튜브 1개품)에 대한 문제를 정보했다.

이 합동회의는 연 2~3회 모이며 대사가 주재한다.

빅·맥(Big Mac) 조심하라!

대장염과 비슷한 증세 속출

최근 Big Mac(맥도날 햄버거)을 사먹은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창자병을 앓는 환자가 캐나다와 미국에 속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질병전문가들은 이를 퇴치키 위해 병원체의 근원을 찾고 있으나 이것이 음식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처음 이 증세가 나타난 것은 작년초로서 미시간과 오레곤주의 맥도날·레스토랑에서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후 오타와 소재의 병원에서도 같은 증세의 환자가 들어왔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통햄버거의 2배인 Big Mac을 먹은후 배를 앓았다고 말했다.

이 질병은 박테리아를 통해 감염되는 출혈성 대장염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냈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3일 혹은 1주일씩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설사를 계속했고 어떤 환자는 피설사도 했다고 밝혔다.

아틀란타의 질병통제센터의 한 의사는 "이 병이 대장염보다는 특이한 증상이라고" 말하고 덜익은 고기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타와에서도 약 31건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도 역시 Big Mac을 먹은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레스토랑 대변인인 스티븐·레오이씨는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자랑스런 한국인"

총연합회, 소재 모집

캐나다 한인총연합회(회장 오기송)는 "자랑스런 의지의 한국인"에 관한 소재를 모집하고 있다.

연합회는 18일자 정기뉴스레터 제10호에서 한국의 중앙방송국(KBS)으로부터 묵묵히 땀흘려 일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보여준 자랑스런 의지의 한국인을 소개하는 녹음"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히고, 캐나다 교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전했다.

Pot O'Gold (3월24일)

금 액	당첨번호
$10,000	480268
$25,000	202683
$50,000	264120
$100,000	299426

보너스 No. 638628
No. 431675
No. 763548

◀금주의 행사▶

– 1983년3월28일(월)~4월3일(일) –

◆3월29일(화) 하오8시 천주교 합동고백식
곳: 쎄인트·폴성당(83 Power St. Tor.)
연락처: 363-0415

◆31일(목) 하오7시 한인신용조합 정기총회
곳: 토론토한인신용조합(641A Bloor St. W.)
연락처: 533-9387

◆3월31일(목)~4월2일(토) 천주교 「성주간」행사
• 31일(성목요일) 하오8:30 – 쎄인트·폴성당
「최후의 만찬 기념미사」
• 1일(성금요일) 하오5시 – 쎄인트·폴성당
수난절예절–「십자가의 길」기도회
• 2일(성토요일) 하오7:30 – 쎄인트·폴성당
새 입교자 세례식
• 2일(성토요일) 하오 9시 – 쎄인트·폴성당
예수 부활 축하미사

◆4월2일(토) 하오6:30 성균관대학동창회 임시총회
곳: 남강식당(910 Yonge St. Tor.)
연락처: 267-5550, 625-0561

◆3일(일) 상오6시 부활절 연합예배
곳: 서니브룩·파 축구장(레슬리×에글린톤)
연락처: 535-6864

오늘의 예금금리(3/10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5%		7.5%
90일	9.0%		7.5%
180일	9.0%	8.75%	7.5%
365일	9.0%	8.7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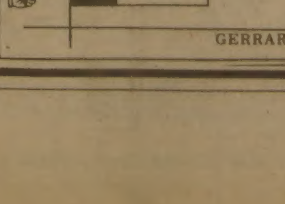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622 5147

은하 ROLEX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혜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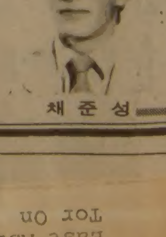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훈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BROADWAY FRUIT MARKET
—도매상—
부활절 기간을 맞아 화분, CUT FLOWER등 각종 꽃, 화초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주문해 주시고, 가격은 온타리오 FOOD MARKET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해 드리오니, 많은 애용바라겠읍니다.
437 CARLAW AVE.
☎: 465-8167
MR. 곽 MR. 김


스타미용실

월요일 새 이전장소
1353 Danforth Rd.
(DANFORTH RD.×EGLINTON에서 약간 북쪽 COURTESY플라자내)
종국에서 월요일만 하고 있는 미장원을 이번에 남·녀 모두이용할 수 있는 아래 장소로 옮기게 되었사오니, 교민 여러분 많이 왕림하여 주시면 최대의친절과 써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다.
● 전화예약 / 화~토 : 741-4410
월 : 261-1533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노동단체 정치색 배제해야"

가톨릭주교 성명발표

2백만의 당원을 가진 노동당이 최근 사회개조의 일환으로 농부, 교사, 노년층과 실직자를 위한 정치활동에 교회가 적극 후원해 줄것을 요청한데 대해 로마 가톨릭 주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단체들의 과격한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가톨릭 주교사회사업위원회의 의장인 빅토리아의 레미데루(Remi de Roo)신부는 "현재 전국으로 서서히 확산하고 있는 사회운동이 온전하며 규율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전제하면서 바티칸은 교황의 칙서를 통해 토마가톨릭의 실직자들의 과격한 정치참여를 금한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주교들은 로마가톨릭이 실직자들, 사회복지금 의존자들, 독신모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연구하는 소규모의 엘리트 조직을 형성해 일하지만 정치적 동맹에는 너무 깊이 관여치 않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신랄히 비판하고 교회가 과거에도 어떤 정치 목적을 위해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원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샤론주교는 "우리도 이제는 일어나 나팔불고 참여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지마는 이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교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방정부정책이 비윤리적이며 부유층을 위해 극빈자들을 도외시한다"고 비난한바 있다.

주교들은 정부가 150만명의 실직자들을 위해 직장을 더 구상해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노인사회복지연금 의존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변호사 사무실 이전

5월부터 변호사지망생 연수

강찬영변호사 사무실 확장·이전 축하파티에는 교민 60여명이 참석, 발전을 축하했다.

81년 변호사가 된 강씨는 그동안 블루어와 배서스트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으나 개업 2년만에 팔리아먼트와 던다스·스트릿의 빌딩을 구입, 사무실을 확장·이전케된 것이다.

현재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강변호사 사무실은 또 오는 5월부터 이현수(24)씨를 견습 변호사로 맞아들인다.

토론토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뒤 금년에 오타와 법대를 졸업하는 이씨는 강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친뒤 다시 6개월의 공부를 마치고 최종 변호사자격시험을 패스하면 정식 변호사가 된다.

◆이현수씨

70년 캐나다에 이민 온 이씨는 동부장로교회 이준희 장로의 3남1녀중 둘째아들로 강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주로 상법과 가정법 관계 사건을 취급한다.

현재 캐나다의 한국계 변호사로는 강변호사와 밴쿠버의 김종만씨등 두 사람이 있으며 현재 법대의 재학생인 변호사 지망생은 5~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향우회 정기이사회

영남향우회(회장 장필규)는 지난 11일 가진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새 회계년도의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집행부 임원을 인준시켰다.

이날 하오 7시 거구장에서 있은 이사회에는 총 28명이 참석했었다.

영남향우회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신중화씨, 부이사장 박시환씨등이다.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필규
◉부회장: 배경탁
◉부회장: 정상우
◉총무겸재무: 박인원
◉기획: 김한용
◉체육: 김평한
◉봉사·섭외: 김부원
◉홍보: 위정남

〈현대적 속담풀이〉

『거지와 도승지』

오 강 남 박사(종교학)

—매임과 놓임 역학—

◆오강남씨

「거지가 도승지 불쌍타고 한다」 도승지(都承旨)란 옛날 승정원의 승지들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정삼품 벼슬이다.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비슷한 자리일까? 아뭏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분을 거지의 입장으로서 감히 동정을 한다니 얼마나 가소로우냐 하는 뜻인 것 같다.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부자집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집 식구들이 모두 발을 동동구르며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거지아버지가 아이들을 향해 왈 「너희들은 저렇 걱정이 없으니 그것이 다 아버지 잘 둔 덕인줄이나 알라」고 했다는 이야기 생각이 난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그 소리가 단순한 우스개 소리만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요즘같은 사회에서 그 무슨 어정쩡하고 맹랑한 소리를 하는가? 자본주의의 최대의 미덕은 부를 축적하는 일.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을수록 좋다. "To be or not to be"가 문제되던 시절은 지나가고 "To have or not to have"가 문제되는 시대. 인간은 이제 그 됨됨이(Being)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가짐(Having)으로 저울질되지 않는가. 유대인들을 보라. 우리도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큰손"으로 군림 해봐야 하는 것. 이런 판국에 거지 신세를 찬양하다니, 그런 소국주의, 패배주의 자세로 남을 오염하려들지 말라.」 고 하는 꾸중 소리가 귀에 쟁쟁 들리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거지됨 자체를 찬양하려거나 부자됨 자체를 불쌍히 여기자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다 없다」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바울의 말처럼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집착이 문제라는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돈돈하느라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돈에 달라붙어서 악발이처럼 움켜잡음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돈을 가져봐도 신통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 부자들도 더러는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구좌에 얼마이하의 돈이 있는 사람은 천국행, 얼마 이상의 돈이 있는 사람은 지옥행 하는 식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부의 척도에 따라 양과 염소를 가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원숭이 잡는 틀 생각이 난다. 남양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만한 구멍을 뚫고 그 속에다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이나 과자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 코코넛 속에 있는 땅콩을 꺼내겠다고 손을 쑤셔넣어 땅콩을 한줌 쥔다. 일단 주먹을 쥔 손은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땅콩이 아까워서, 일단 잡은 것을 놓았다가는 큰 일 날것 같아서, 혹은 그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자기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손을 펴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 붙들려 있게 된다. 그러면 원숭이 사냥꾼은 유유히 다가가서 원숭이를 사로 잡는다.

거지든 도승지든 손을 움켜쥐고 펼줄 모르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거지든 도승지든 손을 펼때가서 펼줄 알면 자유스런 사람들이다. 거지든 도승지든 더욱 「부하려 하는 자들」(딤전6:9)의 위치에 서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기보다 어렵게 된다.(마 19:24)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세상에서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가?

오늘 같은 세상이니까 더욱 절실한 초청의 말씀이 아닐까?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흙과 사나이

<199>

어머니와 아들 ⑥

"영감을 버리고 아들과 도망쳤지"

아들이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고 있자 그녀는 신이 나서 다시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 중국 노인한테는 늦게둔 아들이 하나있었어. 딸들만 내리넷을두었다가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끔찍히도 귀여워했지. 그런데 말이다. 그 아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거야. 나보다 한살이 위였는데 나를 좋아하기 시작한거야.』

노파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면서 수줍은듯 웃었다. 목소리까지 은밀해져 있었다. 먼 과거를 더듬는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네번째인가 듣는 이야기였지만 그는 그 이야기가 싫지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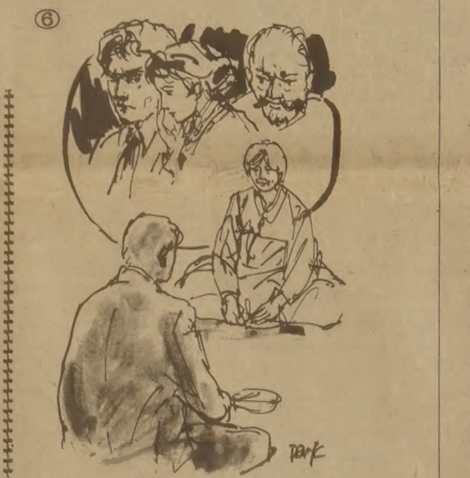
『그러나 일이 곤란하게된거야. 영감하고 아들이 한꺼번에 나를 좋아하게됐으니 그집에 난리가 난거지. 겉으로야 조용한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 내가 처녀 때에는 아주 예뻤거든. 남자들이 나만보면 침을 흘렸으니까. 노인은 나를 자기의 후처로 삼으려고했어. 그것을 알고 아들은 펄쩍 뛰었지. 절대 그럴수가 없다고 펄쩍뛰었지.

그러나 영감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어. 영감은 질투가 나자 그때부터 나를 데리고 잤어. 하지만 아기를 갖게할 힘은 없었지. 일흔이 넘었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 그저 나를 귀여워해준거지.』

이번에는 그녀의 아들이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말을 막지는 않았다.

그녀는 즐거운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 영감보다 아들을 좋아했어. 아들이 도망치자고 하자 함께 도망쳤지. 그때가 [illegible]였지. 우리는 한달동안 도망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처럼 좋은때가 없었어. 정말 좋았었지. 그런때가 다시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이젠 다 늙었지만 말이야. 한달 [illegible]에 집으로 돌아오자 영감도 그제는 할수가없었지. 하는수없이 우리를맺어줬지. 우리는 신방을 차리고 함께 살았어. 그리고 나는 곧 아기를 가졌지. 그게 바로 너란다.



朴男 그림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가 도망다닐때 아기를가진거야. 너를 가졌을때 난 태몽을 꾸었는데지금도 생생히 기억이난다. 비바람치고 번개가 번쩍이는데 아주 새카만 황소한마리가 미쳐서 날뛰는거야. 들판에서 미쳐 날뛰다가 마을로 내려와서는 닥치는대로 뿔로 치고 받는거야. 난 꿈속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몰매를 맞아죽었다. 아주 끔찍한 꿈이었지. 꿈이야기는 안할려고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다했지.』

노파는 기분이 안좋은지 어깨를 추스리면서 아들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도 꿈 이야기를 듣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꿈 따위는 믿지도않지만 막상 듣고보니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달이차서 너를 낳았지.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지. 그런데 말이다. 너를 낳고나서 말썽이 생긴거야. 네 아버지가 너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거야. 너를 영감 아들이라고 생각 한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아버지아기를 낳았다는 거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아버지는 듣지를 않았다. 한번 의심하기시작하니까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더구나. 천지가 무너지는것 같았지만 하는수 없었지. 그때는 이미 영감도 세상을 떠난 뒤였어. 그 뒤에 나는 또 아들을 낳았지. 바로 네 동생이 었어.』

프로야구 코미셔너 출마

미국 야구왕 행크·아론

미프로야구의 홈런왕이었던 행크·아론(Hank Aaron)씨는 23일 차기 프로야구 코미셔너가 되기 위해 메이저리그 각 구단주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아무도 출마한 사람은 없으나 내가 도전할 것이다. 현 커미셔너인 보위·쿤씨에게는 유감도 없지만 나는 그 자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임 쿤씨는 오는 8월 그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재임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협회는 곧 그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

행크아론은 작년도 야구인의 최고영예인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추서되었고 현재는 아틀란다 브레이브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이어 "나는 떨어진 야구인의 공신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코미셔너는 선수와 게임과 일반관중을 모두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의 전생애를 야구에 바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코미셔너 선출위원의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봅·루리 구단주는 "행크는 우수한 선수였으며, 원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그가 행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게임진행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트로 은행강도

작년비해 2배 증가

지난 4개월간 발생한 메트로·토론토의 은행강도 건수는 1년전 건수의 약 2배에 이른다고 캐나다 은행가협회의 마이클·발라드씨가 밝혔다.

발라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 사이에 메트로에서는 74건의 은행강도가 발생했으며 1년전인 작년 같은 기간의 발생건수는 38건이었다고 말했다.

은행강도건수의 절반은 피해액이 $1,500이하였다.

메트로 경찰 강도사건전담반의 나도형사는 이날 이같이 강도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은행 텔러들의 태도 때문으로 이들은 무기를 갖지않은 강도라 하더라도 메모쪽지 하나에도 벌벌 떤다고 비난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은행강도 건수가 많은 곳은 몬트리얼로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18건이 발생했었다.

수차례 협박전화

권총강도잡은 박재완씨

21일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맨주먹으로 권총강도를 잡은 교민 박재완씨(※3월24일자 한국일보 참조)는 25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24일 오후 4시경에 누구인지 알수 없는 외국사람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피전화를 4차례나 받았다면서 불안해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여왔다.

리틀·비·수퍼마켓(140-B Carlton St.×Jarvis St.)을 경영하는 박씨는 코너·스토어 주인들이 마음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업인협회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강도사건이 일어난후 지금까지 많은 교민들로부터 위로의 전화가 답지했으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실업인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진상에 대한 문의전화 1통이 없었던 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이 초창기부터 실협 회원임을 강조하면서 "26일 「실협의 밤」행사로 협회임원들이 바쁜줄은 알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회원에게 전화 한번쯤은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일제히 시작된 봄방학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대신 YMCA에 나가 야외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E.J. AUTO BODY

□ 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 수리중 Car를 무료대여.

104 Osler St. #2-3호
(B)766-3122 (R)439-6548
대표 이영두

해병대 창설 34주년
기념식및 제5회 정기총회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모함을 떠나면 배수진뿐인 상륙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3군에 앞장서는 해병이 34년전 한국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된 찬란한 해병대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갖고져 하오니 해병전우회원및 가족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일 시: 1983년 4월15일(금) 오후7시
장 소: 크링톤하우스(693 BLOOR ST. W.)
회 비: $20
연락처: 최장복 591-6859 김명정 652-0370
송기선 270-0876

해병전우회 회장 남 상 현

북한 2대실험 진행중

정권세습·경제의 지방분권화

3월17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에 진행중인 2개의 실험"이라는 제하에 이도·마사다카특파원의 평양발 기사를 특집으로 실고 2개의 실험중 하나는 자식에의 정권이고 또하나는 경제의 지방분권화라고 보도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두가지 사태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하나는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 당서기에게 정권인계 준비로, 이미 「김정일 기념비」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경제의 지방분권화이다. 81년8월 시작된 신공업지도체계에 따라 각도에 경제지도위원회가 설립됐다.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의 큰 폐해인 의사결정의 지연, 생산현장 무시를 바로잡기 위해 도나 군에의 대폭 권한분양의 실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1. 개인숭배

평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변에 세워진 주체사상의 탑과 도심지에 있는 개선문. 작년 김일성의 70세 생일축하로 세운 이 2개의 기념물은 굉장한 조명을 받으며 평양의 밤을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의 탑은 170m이며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10m 더 높은 60m나 된다.

그밖에 김일성의 70세 생일기념으로 8층전물인 대학습당(도서관)과 6천명 수용의 스케이트장도 완성했다.

현재 생존한 세계의 원수중 그만큼 개인숭배가 심한 인물은 발견할 수 없다.

김일성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 김정일(41)에 대한 숭배가 정일의 유년시대에 소급하여 시작되고 있다. "유치원때에 이미 신문·잡지를 읽을 수 있었다"느니, "중학시절에 정치·경제·군사면에 깊은 지식을 가졌다.", "대학초기에 혁명·민족·현대자본주의에 관한 고전적 활동을 했다."는등 그에 대한 찬양은 주로 그의 학교교육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

농촌에는 김정일 어록(語錄)의 비석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차기 집권자로 주목을 끈 것은 70년대 후반부터이나, 북한내 김정일 추대운동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70년대 전반부터 조용히 추진되어왔다.

평양시내 한 노동자의 집에는 김일성의 사진과 함께 같은 크기의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들리는 바로는 1978년, 노동당내에서 김정일 후계주석 추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액자사진이 집집에 분배되었다 한다.

김정일은 73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당서기가 되었고 이듬해(74년)에 정치국에 들어갔다. 그때 이미 그의 오늘의 영예가 약속된 듯하다. 이유는 당의 청년조직,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400만명)중에서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배우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그 무렵이기 때문이다.

◆농민·노동자의 석상 옆에 치솟은 주체사상탑 평양 시내.

"주석의 신임과 따스한 배려" - 모든 기관의 간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김일성의 사진에 대한 경건한 큰절로 그들은 공산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로서는 보기 드문 유교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일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일지라도 있을 수 없는 첫 시도인데, 국민의 숭배라는 배경을 업고 그들은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은공」에의 충성심

지방에도 교역권…독립체제 철저

73년은 중공의 모택동 주석 후계문제를 에워싼 임표 변사사건이 표면화된 시기이며, 임표사건이 「혁명의 정통적 후계자」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 것으로 북한수뇌부를 우려케 했다고 전해진다.

"사회주의 건설이 왜 인민의 이름으로 운운되지 않고, 지도자만 전면에 나오는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의 한 간부는 "두분의 지도자는 밤낮없이 인민을 위해 힘쓰신다. 우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혁명적 의리」라는 말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

의리니, 은혜니 하여 맑스를 낳은 유럽과는 이질적인 정신풍토로 공산주의를 펴고있다.

◆평양의 국영식품점

2. 자급자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는 75년에 이어 두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국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는 때문이다.

동서 양진영에 대한 북한의 채무는 3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부채는 주로 공장설비의 개량에 충당되고 있다. 낡은 소련제 기계 대신 일본, 서독, 프랑스등 서방측 국가들의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끝나고, 특산품인 납, 아연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빚은 갚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측의 변명이다.

북한의 국내경제는 외채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주는듯, 고급품은 없더라도 국영상점에서는 식량·생활필수품·약품·화장품들이 팔리고 있다.

그들의 자급자족도는 중공보다 높고, 공업수준은 유고, 터키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서는 지금 「파도기의 사회주의에는 농민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석 김일성의 결단으로 유지되어온 자유시장(농민이 재배한 채소·과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이 폐지되려 하고 있다.

3. 관리체제

유고의 분권주의, 항가리의 자유시장 부활등 사회주의제도는 재검토될 시기가 왔다. 그런 중에서 북한은 사상의 다양화나 기업활동의 자유화를 금하고 있다. 이른바 「강력구조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철저하여 생산목표를 달성 못하는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안할 수 없게 된다. 어느 대학교수는 "독립채산을 하는 이상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임금삭감하든가 그것이 싫으면 은행에서 빌려야 한다."고, 부채는 다음해의 초과생산으로 갚도록 힘쓴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결점은,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생산목표와 제품 매입가격의 설정방법에 따라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점이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 생산계획의 책정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기업의 현장에서는 서너가지의 「예비숫자」가 전원 토의로 정해진다. 이 숫자는 국가계획위원회, 당정치국, 업무원(각부처)를 거쳐 「통제숫자」가 결정된다. 통제숫자는 다시 기업에 되돌려져, 도·업무원·국가계획위의 순서를 거쳐 최종결정을 보게 된다.

이 숫자의 왕복에 여섯달 걸리고, 다음해의 생산계획이 수립된다.

인구 1천8백만이란 작은 나라의 잇점을 북한은 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소련·중공에는 없는 섬세함이다. 그 섬세함은 협동농장의 분배에서도 볼 수 있다. 생산단위의 분조(20~25명)에 2명의 노동평가원이 끼어 함께 일하면서 조원의 노동과 질과 양을 감시, 채점한다. 점수제도가 매우 엄격하여 풀베기, 논가꾸기, 옥수수밭, 퇴비 만들기까지 능률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매겨진다.

일사불란한 통제 때문에 온갖 사상을 동결하여 「주석의 지도」아래 결속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경제위원회 설치에서 보여지는 경제분권화도 엄격하여 도내의 생산계획 설정과 생산촉진의 양면에서 지도위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분권화의 움직임은 이미 도 이하의 군이 협동농장을 직할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국영공장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도지도위 제도이다.

도에는 특산품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무역권이 부여되었다. 물론 중앙의 인가를 거쳐야 하지만 자치제가 무역권을 갖는 것은 유고의 방식에 가까운 것이다.

도는 독자자원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허락되어 있으며, 농수산물 가공, 주류제조(양주)를 하고 있다. 북한에 술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도내의 국영상점과 공중목욕탕의 수익은 도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사람差別말고 누구나 좋아하라"

"시간 꼭지키고 自制力 갖도록"

매력적 個性창조 社會우등생 10訣

매력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이 학교시절 우등생이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출세를 했더라는 심리적 실험결과가 나왔다.

미국의심리학자 도널드·라이아드는 특정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데이터를 자세히 뽑고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의 추적조사를 계속한 끝에 이러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란 우리나라 종래의 표현은 지나친 극단이지만 사회생활내지 직업활동에 있어서는 지능보다는 개성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무기」라는 점에는 공통성을 지닌다고 볼수 있겠다.

매력적인 개성을 창조할 수 있는 10결을 알아보자.

▲나에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있는 개성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라.

▲사람을 차별하지말고 좋아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당신부터 다른 사람을 좋아해야한다. 주위에는 싫은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의 장점만 보도록.

▲기민하고 활발해야 한다. 멍청한, 축 늘어진 불만스런 사람에게는 결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을리 없다.

▲시간을 꼭 지켜야한다. 시간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성실성과 책임감이 없고 믿을수 없다는 인상을 주게된다.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일이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금방 실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태연한 사람은 태연할 수 있다는 그점만으로도 훌륭하다.

▲기지가 풍부해야 한다. 말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것.

▲칭찬하는 것을 잊지말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자.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상대방의 형편을 항상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위해 늘 마음을 써주는게 좋다. 그리고 그 마음을 태도로 보여줘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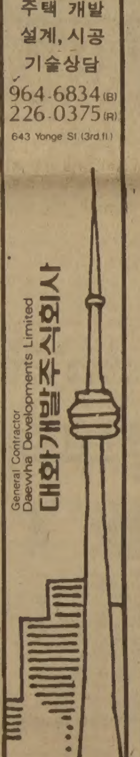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라. 어떤 일의 지원을 얻으려면 단정한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한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한다.

▲곧 행동으로 옮겨라. 모든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간직하는것은 아무 뜻이 없으며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지식을 행동에 옮겨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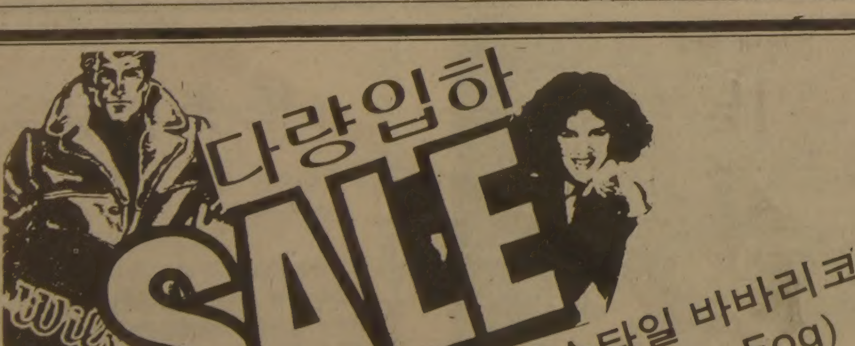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다량입하
SALE
83년 봄스타일 바바리코트
남, 녀용(London Fog)
물세무(남·녀)코트·잠바·투피스·양복
부라우스·원피스·LONDON 봄 잠바
안밖으로 겸용스타일 등
남자용 세무잠바 $99~$125(스페샬 가격)
CHANCE!
LONDON FOG
London Fog코트 구매자에게
London Fog 우산 무료증정
선착순 40개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한인회 이사회
이사회 소집 통보
각 이사귀하
다음과 같이 83년도 제일차 정기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토의안건및 회순◎
①신임이사 소개
②전 회의록 통과
③집행부 업무 보고
④캐라반 운영위원회 운영기본 방침
⑤현영일회계사 추가보고
⑥임시의장 선출
⑦83년도 이사장 선출
⑧감사선출
⑨기타
폐회
◻일자 : 1983년 3월31일(목)
◻시간 : 오후 7시
◻장소 : 한인회관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 함병섭

한국일보

일반미만 팔면 許可취소

政府、연말까지 양곡상 강력단속
鑛山村등엔 放出價로 직접 공급

價格조작·부정유통도 엄단

정부는 쌀값안정을위해 연말까지 양곡상의 가격조작이나 부정유통을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일반미만 팔거나 정부미판매 기피및 가격위반업소는 허가를 취소키로했다.

또한 양곡상들이 자율적으로 쌀값안정에 협조토록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등을통해 소비자들의 정부미인식을 높이는 한편 광산촌이나 공업단지등 대량수요지에는 정부미를 방출가격으로 직접 공급키로했다.

농수산부는 23일 각시도의 식산 산업국장회의를 소집, 그간 쌀값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반상회및 지역단위의 각종회의나 교육을통해 정부미에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소비도 촉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미의 방출확대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해나가면서 광산촌이나 공업단지및 기숙사등 양곡을 대량소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겐 정부미를 가마당 3천7백원의 양곡상 마진을 뺀 정부 방출가격에 직접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양곡상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단속에선 가격조작 가격표시불이행 부정유통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물론 양곡상마다 정부미를 항상6가마이상 보유하는지여부, 정부미판매기피 업태위반, 영업기준위반, 불량계량기사용, 무허가영업등을 조사하게 된다. 일반미가격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통제는 않는 대신 전국양곡상연합회가 일반미가격을 7만원선에서 안정키로 자율결의한것을 이행하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전국16개쌀소비지의 일반미 평균도매시세는 가마당 중품이 6만3천원, 상품이 6만4천5백원선으로작년말에비해 11%가올랐다. 한편농수산부는지난2월 한달동안 각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2만개양곡상에대한 1차 유통지도단속을 실시한결과 8백74개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무허가업소등 8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가격위반·정부미판매기피·무단폐업등 43업소는 허가취소했으며 ▲미신고휴업·정부미常時보유불이행·가격미게시·무단이전및 타인명의 영업·업종업태위반·무허가·영업시설불비등 8백23개업소에 대해선 경고에서 1개월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金총리「半月」방문

金相浹국무총리는 23일하오 金東輝상공·金宗鎬건설장관의 안내로 半月공단을 방문, 공장入住현황과 공단건설추진 현황을 살폈다.

金총리는 宣垣산업기지개발공사 半月공단 사무소장으로부터 공단건설현황보고를 들은 자리에서 半月단지를 市로 승격시켜달란 건의를 받고 수행한 廉普鉉경기지사에게『내무부에 상신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韓·말聯 經協 확대

어제頂上會談
太平洋정상회담등 論議

◇全斗煥대통령이 아마드·샤 말레이지아 국왕과 頂上회담을 갖기에앞서 잠시 환담을 나누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3일상오 靑瓦臺에서 訪韓중인 말레이지아의 아마드·샤國王을 맞아 韓·말레이지아 頂上회담을갖고 韓半島와 太平洋지역을 중심으로한 국제정세전반과경제협력 통상증진방안, 太平洋정상회담 개최문제등 양국의 공동관심사에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예정시간을 30분넘겨 1시간30분동안 계속된 이날회담에서 양국頂上은 양국간의 既存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히해 각분야에걸쳐 상호협력관계를 深化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黃善必 靑瓦臺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한국은 말레이지아의 東方重視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양국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서로돕고 협력해나가면 선진국대열에 다함께 진입할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드·샤국왕은 말레이지아의 東方重視 정책에 대한 全대통령의 지지표명에 謝意를 표하고『한국의 기업들이 말레이지아에 더욱 많이 진출해 말레이지아 기업들과 合作투자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양국頂上은 또 상호기술人力의 교류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太平洋정상회담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아마드·샤국왕은 자신이 모든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국가를 代辯할 입장은 아니나 全대통령의 이같은구상에 전적으로 同感한다는뜻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영부인 李順子여사는아프잔왕비및 수행한 두공주를 별도로만나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 만찬연설
"兩國협력은 亞洲번영증진"

全斗煥 대통령은 23일『말레이지아의「東方정책」에따른한국과의 협력체제는 두나라간 실질협력의 훌륭한 본보기이며 무한한 협력가능성을 실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지적,『한국과 말레이지아는 이러한 협력의 토대위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나아가 太平洋圈의 협력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말레이지아의 아마드·샤 국왕내외를 위해 베푼 만찬에서 연설을통해 이같이 말하고『그러한 뜻에서 陛下의 이번 訪韓은 양국간의 同伴者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양국민간의 우의와이해를 넓히는데 크게이바지할것으로믿는다』고밝혔다.

아마드·샤 국왕은 이에 대한 答辭에서『우리는 말레이지아의 산업화및 현대화계획에 한국의 기업가와 경영자들이 더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상당히있다고 본다』고 밝히고『우리들은 한국의 기술이 우리들이 계획하고있는 경제발전과 다양화에 가장 적합하다고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오늘 安保문제 연설

【워싱턴UPI=聯】레이건 美대통령은 23일 하오8시(한국시간 24일 상오10시) 백악관집무실에서 국가안보및 방위문제에관한 중요연설을 할것이라고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이 22일밝혔다.

스피크스 부대변인은 레이건대통령의 연설이『안보문제에관한 거국적인 논의와때를같이해』행해지는 것이라면서 레이건대통령이 전국에 TV로 중계되는 이연설을통해『미국의 방위태세 회복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과 미국이 직면하고있는 위협을 특히 강조한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극비문서들을 기밀분류에서 해제, 그 내용을 연설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美、軍縮 타협안 마련

【워싱턴AP聯=聯】레이건美대통령은 美蘇의 유럽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쌍방75내지 1백基로 하자는 타협안을소련측에 제안할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23일 美관리들이전했다.

미국의「제로옵션」을 소련이 전면거부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美蘇군축회담을 타개하기위해 마련된 이같은 타협안은 美국방성고위관리들에 의해 마련된것으로 아직 그세부사항은 작업중이나 새제안은 美蘇쌍방의 유럽배치중거리 미사일기수를 75내지 1백基, 핵탄두를 3백개로 제한하자는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제로옵션은 소련이 西유럽을 목표로 배치한 SS20미사일 3백50基와 SS4, SS5미사일 2백50基를 철수할경우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방위계획에따라 금년안에 유럽에 배치될 5백72基의 크루즈미사일과 퍼싱Ⅱ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제안이다.

◇美·蘇전투기 카리브海 上空서 대치 소련 TU95베어 해상초계기가 지난 19일 카리브海에서 작전중인 美함대에접근하자 航母아이젠하워호에서 발진한 美해군 F144톰캐트전투기가 진로를 차단, 작전해역을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다【AP】

商工委、激論끝에 空轉

動資部보고 서류접수후 散會

국회는 22일하오 商工委를 열어 油價인하및 수입자유화 정책에대한 정부의 보고를듣고 정책질의를 벌일예정이었으나 野黨측이 요구한 金埈成부총리의 출석을 둘러싸고 與野가 끝까지 대립, 油價문제를 다루지못하고 空轉했다.

상공위는 이날밤12시께 民韓黨의원들이 不參한 가운데 상공부와 動資部의 보고를 서류접수로 대체하고 散會를 선포했다.

이날 商工委가 空轉을 거듭하자 李鍾贊 民正·林鍾基 民韓·李東鎭국민당 총무는 밤9시께 총무회담을갖고 타개책을 논의, 民正黨은 정부측 보고를 듣고 미진하면 추후 經科·商工委 연석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자고했으나 野黨측은 오는 25일 연석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날회의가 散會된뒤 李民正총무는『원내총무로 재임된 첫날부터 이런사태가 일어나 유감스럽다』면서『비공식적 접촉을통해 대화정치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林民韓총무는『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총무회담을 요청, 상공위나 연석회의를 열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고 李국민 총무도『연석회의 소집을民正黨측에 요구하겠다』고말했다.

商工委 공전은 정부·與黨책임
民韓·국민비난

民韓黨과 국민당은 23일商工委가 空轉된데 대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民韓黨睦堯相대변인=油價인하 영향과 수입자유화 문제는 主務部處간 異見이 있을뿐만 아니라 追更예산안편성없이 原油價인하분을 留保分을 轉用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예산회계법과 석유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회 經科委·商工委 連席회의 소집조차 외면한것은 대화정치를 무색케한것으로 하루빨리 관계常委를 소집, 부총리의 原油價인하에 따른 해명이 있기를 거듭 강력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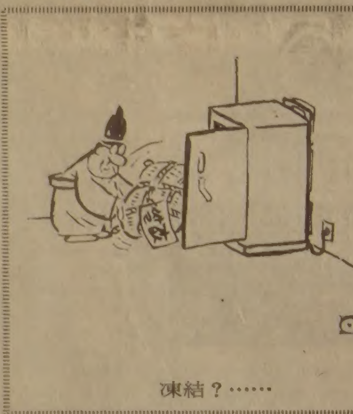
▲국민당 金完泰 대변인=부총리의 출석을 거부한 여당의 태도로 상공위가 끝내 空轉하고만것은 국정심의에 대한 정부·여당의무성의와 국회經視풍조때문이라고 단정한다.

民正, 黨憲案확정

民正黨은 오는28일의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최종적인 黨憲개정안을 마련, 23일 공고했다.

이 黨憲개정안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운영되어오던 당직자회의를 제도화, 中執委내에 黨5役과 총재가 지명하는 5人이내의 중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를 신설, 일상黨務를 결정하여 처리할수 있도록했다.

社會漫評



凍結?……

정부部處間 人事교류
5級 4월、4級 7·8월

정부는 금년도 部處間교류인사를 5급공무원의 경우 4월에,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7, 8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가 23일 각部處에 시달한 부처간 人事交流시행지침에 의하면 5급공무원은 현직급在職기간 1년이상 5년이하의 45세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4급이상도 在職기간 1년이상 5년이하인 사람으로써 교류예정직위와 관련분야에 5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50세이하를 대상으로하며 5급은 중앙행정기관에 交流시키고 4급이상 공무원은 경제부처간교류에 한정키로 했다.

地平線

좀 색다른 세미나가 지난21일부터서울 세라톤 워커힐호텔서 열리고 있다。「국가발전과 안보」라는 주제아래 열린 제7차 태평양지역 陸軍管理세미나로서 내일까지 계속된다。주최자는 한국육군과 미육군 서부지역 사령부 공동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20개국의 육군중견대표 약1백50명이 참석하고 있다。▼역내 여러나라 육군과관련된 문제를 폭넓게다루는 이군사 세미나의 시발은 1978년9월, 미서부지역사령부주관으로 8개국이 참석한가운데 하와이서 제1차회의가 개최됐었다。그후 해마다 참가국수가 늘어 81년 5차대회땐 미서부지역사령부와 필리핀육군, 그리고 작년에는 동사령부와 파푸아 뉴기니군이 제휴하여 공동주최했었다。그간 개최지는 주로 하와이였으며 그밖에는 필리핀에이어 두번째로 이번 한국이 선정되었다。▼가능한한정치성을 배제하고 참가각국 육군의 공동관심사를 토의,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국가발전과 안보」라는 주제도 그러려니와 세미나의 참가국전부가 아시아·태평양권에 속해있는점이 우리로서 반기고 관심을 기울이게한다。태평양연안국끼리의 모듬을여는것은 韓國의 오랜바람이었다。全斗煥대통령은 올 年頭시정연설에서도 태평양정상회담을 추진하기위해 노력을 경주할것을 재삼다짐한바있다。▼얼마전 서울에온 전임 軍縮안보담당보좌관리처드·알렌씨는 그런회담개최구상자체가 매우 훌륭한데비해 실현엔 현실적어려움이 뒤따를것이라고 내다봤다。域內 지역이 방대하고 국가수가 많으며 나토국가들과는 달리 나라 마다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처럼 공동의 廣場으로 모이기가 힘든 여건에서 역내 각국의 육군대표들이 세미나를 열며 참가국수를 넓혀가는 것은 보다 큰 모임을 위한 발판이나 노력의 一助로 통할수 있을것같다。▼黃永時 韓國陸參총장은『이자리에서 태평양지역 여러나라가 공동의문제점및 이와관련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이지역의 평화와안정 그리고번영에 크게 기여하게될것』이라고 기조연설에서 강조했다한다。누구도 수긍치 않을수 없는 대목이었다 할것이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임송학태권도장

이토비콕올림피움
특설개관

■자신감 배양
■호신술 연마
■튼튼한 체력연마
■인격도야
■한국인긍지 함양

590 RATHBURN RD
(ETOBICOKE OLYMPIUM 안)

교민여러분께!
금번 제가 이토비콕 올림피움 체육관내에서 도장을 특설 개관하여많은 수련생들을 지도중이오니, 계속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송학 드림

1963 WESTON RD.
(WESTON & LAWRENCE)
247-7577
RIM'S TAEKWON-DO
임송학 태권도장

◇玉土위에선 災難의다리 지난21일 홍수로 2백여명의 사망자를낸 페루북부 암카시성주민들이 진흙탕물위에 세운 임시다리를 넘고있다。【키스마 (페루) UPI聯合=聯合】

天災·人災 잇달아… 고통의 地球村

이디오피아旱魃 수십만명 死亡

【뉴욕UPI=聯合】아프리카동부 이디오피아에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수십만명이 사망했으며 南美서부 페루와 볼리비아, 그리고 미국도 각각 폭우및 때아닌 폭설등 이상기상의 기습으로 상당수의 희생자를 낸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방글라、열차추락 大慘事 / 南美선 突變기상 떼죽음

이와 때를같이해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날 승객을 가득태운 열차가 1백년된 철교의 붕괴로 추락해 60여명이 사망했으며 필리핀에서도 말레이지아로 향하던 소형여객선이 선상폭발을일으켜 3명이 희생되는등 세계곳곳에서 어두운 소식들이 꼬리를물었다。

이디오피아反정부게릴라단체대변인은 가뭄의 피해가극심한 이디오피아의 西部에리트레아지방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을 포함한 수십만명이사망했다고 전하면서 정부가이같은 참상을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보도들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되고있는 살인적인 가뭄으로 이디오피아人 60만이 고통받고있다고 전하고 이번가뭄이 이지역의 농산물수확을 최고 50%까지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는 며칠째 계속되고있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 지금까지 최소한 2백6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실종(대부분 사망한것으로 추정)된 것으로 공식집계됐다。

볼리비아정부는 강의 범람으로 4만여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빚은 산타크루스지방에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오리건州의 폭우및 중서부지방을 엄습하고 있는 때아닌 폭설및 이상한파등으로 15명이상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북부에서는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철교가 무너지는바람에 25m아래의 계곡으로 추락, 60여명이 사망(공식발표는 최소한 16명)하고 1백명이상이 부상한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이철교가 1백년전에 건설됐으며 사고당시 최고시속 96㎞의 강풍이 불어 이같은 참변이 발생한것 같다고 발표했다。

모르와首相 재지명 / 佛組閣 공산당半減

【파리AP聯=聯合】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22일 피에르·모르와 수상내각의 일괄사퇴서를 일단 수리했으나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모르와수상을 재지명, 組閣을 위촉했으며 모르와수상은 즉각 새 15인내각을 구성했다。

새 내각의 공산당소속각료는 과거의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관련기사3면

이날 구성된 새15인내각은 9명의 국무상을 제외하고도 36명이나 되었던 각료수를 대폭 줄인 것이다。

프랑스의 새 15인각료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상=피에르·모르와▲경제·재정·예산=자크·들로르▲내무=가스통·드페르▲외무=클로드·셰송▲국방상=샤를·에르뉘▲농업상=미셸·로카르▲산업·연구상=로랑·파비위▲교육상=알랭·사바리▲대외무역·관광상=에디트·크레송(新)▲주택·도시문제=로제·키요▲직업훈련상=마르셀·리구(共產黨·留)▲사법=로베르·바댕테르▲외무상=클로드·셰송▲사회문제=피에르·베레고부아

모스크바에「非常조짐」

蘇國防相·돌연귀국… 거리에 경찰多數배치

【모스크바AP=聯合】헝가리를 방문하기위해 22일상오 모스크바를 출발했던 드미트리·F·우스티노프 소련國防相이 이날하오 돌연 귀국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우스티노프국방상이 이날 야노스·카다르 헝가리 共產黨제1서기와 전반적인 양국관계및 군사협력증진방안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헝가리관영 MTI통신은 우스티노프국방상이 이날하오 제1副國防相겸 바르샤바조약군 총사령관인 빅토르·쿨리코프원수를 대동하고 부다페스트를 떠나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모스크바주재 西方기자들은 22일밤 모스크바거리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다수의 정복경찰관들이 배치됐다고 전했다。

한편 타스통신은 이날『數理論의 基本原理』저자인 蘇聯의 저명한 수학자 이반·비노그라도프가 지난20일 9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유리·안드로포프 공산당서기장을 비롯한 각계지도자들이 서명한 비노그라도프의 부고문을 인용했는데 모스크바방송은 비노그라도프의 사망뉴스에서 안드로포프의 이름을 생략했다。

泰프렘聯政 붕괴危機

제1黨 社會行動黨 탈퇴시위

【방콕AP AFP=聯合】프렘·틴술라논다 수상의 타이聯政은 의회해산、조기총선 실시등 최근들어 취한 일련의 말썽 많은 조치들과 관련、거의붕괴직전에 이르렀으나 聯政참여 정당들이 탈퇴위협을 거둠으로써 위기를 넘긴것으로 22일 알려졌다。

3개 聯政참여 정당가운데 최대의 정당인 社會行動黨의 쿠크리트·프라모지 당수(前수상)는 이날하오 고위黨직자회의를 소집 聯政탈퇴문제를 논의、오는 4월18일 총선에 입후보를 내기로결정했다고 한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프렘수상은 이날 閣議에서 3개 聯政참여 정당들이 정부를떠나지 말도록 호소하는한편 각료들에게 3일전 전격적인 의회해산조치를 취한것을 사과했다。

鄭石謨 民正黨 신임 政策委의장

인터뷰

「陰地」고통 더는 정책優先

『아직 黨의 정책업무에 대한 설명도 듣지않고 깊이 연구해보지도 않았는데…。그러나 陽地보다 陰地에 있는, 건강한 사람보다 불편하고 어두운곳에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말할수있읍니다』

民正黨의 신임 鄭石謨정책위의장은 23일 政策總師로서 자신이 추진해할 업무의 방향을 이렇게 피력했다。

鄭의장은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가령 국가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뒤따를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眼目에서 그 부담과 고통을 극소화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것』이라고 敷衍했다。

—黨의 정책비중이 경제문제에 치중하고있는것 같은데…。

『무슨뜻인지 알겠읍니다。국회의원이 되기전에 경찰과 내무부에만 근무한 행정경력때문에 경제문제에는 어두울것이라는 우려가 있을수있다는것을 시인합니다。그러나 道행정은 道伯4년 종합행정이므로 道伯4년의 경험을 살리면 重責을 大過없이 견뎌낼 자신이 있읍니다』

—정책파트의 운영방안에 대해。

『정책을 잘 다듬고 걸러 黨이 異議없이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위산하 모든 기구와 능력을 총동원하겠읍니다』

신중하면서도자신감이넘치는그의소신은 계속됐다。

『그동안 黨의 정책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그렇지만 정책이란 아무리 좋아도 집행하는 사람과 국민들간의 共感帶가 형성되지 않고는 실효를거둘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이같은 정책개발에 비중을 두겠읍니다』

—앞으로 정책의 黨政협조방안은。

『정부와 집권당은 똑같이 국민에 대한 무거운책임을 지고있지요。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책수립의 기능에 있고 黨은 黨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그러나 집행기능은 정부에 있는 만큼 黨政협조는 절대 필요하며 원활히 이뤄져야합니다』

—野黨측과 정책對決을 벌여야하는데…。

『국민을 위하고 國益을 도모하는데 與野의 차이가있을 수 없잖아요。다만 접근방법에서 異見이 나올수 있지만 이는 얼마든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읍니다。설혹 끝까지 견해가 다를지라도 최선을 다해「作品」을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하겠읍니다』【李以春 기자】

社說

時急한 영농機械化 —春分후 첫봄비에 農村을 생각함

엊그제 春分을 고비로 봄날씨가 화창하게 풀리며 비가 내렸다。이맘때 비가 오면 보리가 잘 된다고 한다。보리관리를 서둘러야 할 때다。追肥를 때놓치지않고 제대로해야 봄비를 촉촉히 맞은 논밭이 수분을 흡뻑 빨아 부풀어 오른다。보리의 분얼이 한창 성할 무렵이므로 올해 보리풍년을 예고해 주기도 한다。

바야흐로 춘경이 본격화하는 계절이다。하나 막상 논밭을 갈아야할 농촌엔 젊은이들이 모자란다。손이 달리는 것이다。며칠만 있으면 못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농번기가 다가올 참이어서 걱정은 벌써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가지 마음이 좀 놓이는 것은 예전보다 농촌에도 기계화의 물결이 다가와 있는것 뿐이다。

정부는 오는87년까지 평야지대의 농사를 완전기계화 할 방침을 세웠다。올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덜어줄 새마을기계화영농단을 1천5백개나 새로 만든다 한다。

트랙터 9백8대、이앙기 1천3백13대、콤바인 8백25대、바인더 2백12대、건조기 3백48대등 4천6백83대가 올해 새로 영농단에 공급된다。기존 1천6백22개 영농단에도 트랙터44대등 1백88대의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91년까지는 그 새마을기계화 영농단이 2만개로 늘어날예정이므로 영농기계화에 기대가 자못 클 수 밖에 없다。

외국에비하면 아직 보잘것없지만 우리농촌도 많이 기계화된것은 사실이다。어떤 두메 산골엘 가도 탈탈대는 경운기소리가 들려오고 금년엔 수동식 이앙기까지 등장했다。트랙터같은 대형농기계는 아직 보급이 멀었으나 가구당 농기계가 한대꼴로 보급될 날은 그리 멀지않다。

87년까지 1조3천억원 가량이 농기계보급을위해 투입되면 경운기 36만3천대(5·4가구당1대)、방제기 48만8천대(4·1가구당)、이앙기8만8천대(22·5가구당)、수확기13만6천대(10·1가구당)、기타 61만2천대를 우리 농촌이 보유하게된다。

하지만 농기계보급은 숫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많다。우선 경지기반의 미비、농촌구매력의 빈약、영농규모의 영세성、사후봉사의 불충분、조작기술의 미숙、농기계가격의 앙등、품질의 저질등 농업기계화사업상의 애로는 허다하다。

지금까지 농촌에 보급된 농기계는 약 1백30만대 정도로 농가 한집반에 1대꼴 미만。경운기는 주로한아 40만대여서 대여섯집에 1대이다。하나 이농기계들이 모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

조작기술의 미숙과 부품공급의 어려움에 겹쳐 발동이 잘 안걸리고 금새 망가지는 粗惡品도 상당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또 우리 농토에 맞는 濕畓、山地用농기계도 나와야 하는 것이다。

외국농가에 가보면 몇십만평되는 농지를 농민몇사람이 큰 기계를 움직여 농사짓는 광경을 흔히 볼수있다。이들은 기계를 조작하고 기계를 손질하는데 하루의 일과를 거의 다 보내는 것이다。

농지上限制9천평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게 우리농촌이다。하나 현실에 맞게 농업團地化、企業化、機械化를 서둘러야 先進韓國의 이미지를 농업영역에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재배로 우리도 이제는 몇만평 단위의 규모는 상당수 생겼다。토마토 재배단지 몇십만평、과수단지 수백만평의 영농이 눈앞에 와있는 것이다。트랙터없이는 농사를 못짓게될 시대가 금방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앞에 말한대로 영농기계화가 농기계보급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농업구조、농가형태를 기계영농에 알맞게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先納制의 是正추세 —그 廢止對象 더 넓힐수는 없나

先納制시대가 바야흐로 幕을내리기 시작한것 같다。

지난월초 체신부당국은 電話가설 신청때에 미리 받아오고 있는 청약금제도를 올下半期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때까지 청약금을 예치중인 예약자들에게는 그간의 이자를 계산하여 元利金을 되돌려주기로 하였다。

이런 先納制에서 大宗의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무어니 무어니해도 銀行대출금에 대한 先利子라 할것이다。은행이 고객에게 융자할때 융자금지출과 동시에 적어도 한달치 안팎의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이다。하데 이와는 반대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맡는 예금에 대하여는 한달뒤(定期예금의 경우)또는 석달뒤(가계 저축예금등)에 利子를 계산해주고 있다。利子를 주고 받을경우 이처럼 正反對의 방법을 쓰는데서도 은행 문턱은 높구나하는 實感을 낳게했다。

지난 1월하순 公正去來위원회는 이같은 銀行대출금에 대한 先利子제도가 不當함을 判示하였다。이는「금융·보험·부동산업등이 독과점에 속한다고 보고 先利子制가 不公正한 처사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뒤 한국은행은 이 判示에 따라 先利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하고 제1단계조치로서 오는 7월부터 우선 시설자금등에 대한 先利子制를 폐지토록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융자와 가계대출금에 대하여는 은행수지에 대한 영향이 크기때문에 이를 오는 85년까지 폐지하기로 정한는 한편 상업어음할인형식의 융자와 수출금융등은 성질상 계속 先利子制로 나간다는것이다。

전화청약금과 은행의 先利子制철폐를 올下半期부터 실시한다는 조치가 우연의 一致인지는 모르겠다。하나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先拂제도가 不合理한 것이라는 公論에 따라 취한 조치라면 그 실시 時期를 더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한 일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연장 선상에서 생각되는 대상은 先納제도중 다수 시민에게 영향이 큰 中學校이상의 公納金이다。현재 여러項目으로 이루어진 학교 등록금은 1년치 또는 半年치를 一時에 先納하게 한다。나이든 世代들은 月謝金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흔하다。전에는 다달이 내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므로 학교공납금의 경우도 學父兄들의 형편을 생각하여 현재보다 여러번씩 나누어 내게하는 제도라도 생각해봄직한 일이다。미리 여러달치를 그것도 一時에 내게한다는것은 결코 合理的이라고 할수없기 때문이다。

각종 보험료의 一時先納에 대하여는 金利를 따져 割引하고 있다。또 전화료는 사용후 40여일쯤 뒤에 내며 전기료는 20여일、그리고 가정용 수도료는 두달치를 사용후 50일쯤 뒤에 지불하는 것이 慣行인것이다。

後拂制가 은행·학교등의 收支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것은、따져 생각하면 先納制는 반대로 그만큼 미리 내는 시민들에게 이치에 맞지않는 짐을 지게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어쨌든 先納制時代는 막을 내리기시작하고 後拂制 또는 細分先納制의 폭이 넓혀지는 추세는 국민에게는 明朗한 소식이다。더빨리、그리고 더 과감하게 모든 先納制를 後拂制로 전환시키는 淸新한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

27國서 수십만 정치殺害

앰네스티報告書 지난10년간

【런던UPI=聯合】지난10년간 전세계 27개국에서 政府에 의한 「살인조직」에 의해 수십만명이 「정치적 살해」를 당했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22일 폭로했다。

런던에 본부를둔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백3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필리핀등 전세계27개국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살인의 유형이 70년대에는 우간다 캄보디아등에서의 대량학살에서 최근에는 『집단살인·암살·살해은닉』등으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日國策硏 대표이사 야쓰기씨 別世

【東京=宋彬特派員】일본정계의 막후인물로 한국과 臺灣로비스트로 알려진 國策연구회대표이사 야쓰기·가즈오씨(矢次一夫·사진)가 22일하오8시께 東京여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입원중 사망했다。향년83세。

人事異動

貿易協會

▲朱東石(大田지부장)▲張垣(회원사업부장)▲金復龍(관리국장)▲李天福(수입규제대책반장)(31일자)

記者의 눈

누구를 위한 空轉인가

국회가「民意의 殿堂」으로 불리는 것은 글자그대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수렴하면서 그들의 기대와 불만을 代辯하고 濾過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기능은 얼마만큼이나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發現시키면서 國政에 반영시키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게 된다。

이러한 尺度로 재어볼때 장장 10시간이라는 11代국회들어 最長의 停會소동끝에 議政을 空轉시킨 22일의 국회商工委는「民意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문제처리능력을 의심케한다。

더구나 이날 商工委가다룰 예정이었던 의제는 국제原油價인하에 따른 국내油價반영 문제와 수입자유화 정책등으로 모두가국민의 눈길이 쏠린 중요한 관심사들이었다。

이리 굴려보고 저리굴려봐도 空轉의 쟁점은 金埈成부총리의 국회출석을 둘러싼「절차상의 문제」뿐 별다른 이유를 찾아낼수가 없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사소한 이유가 국민적 관심사를 외면했다는 본론에 귀착하게되며 따라서 商工委의 空轉은 중대한 國政심의포기행위이자국민의대표로서의 權能의 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수 있게된다。

이번 空轉의 첫째根因은 정치력의 無力현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空轉의 쟁점이 油價반영비율을 따지기위한 부총리의 출석요구라는 절차상의 문제였다면 이를 요구하는 야당측이나 이를 거부하는 여당측이나 사전절충을통해 상대를 충분히 설득시키는게 순서였다。

이같은 교과서的 이론을 내세우는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對국민 납득이필요한 시점이고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수있는 여야 共히「絶好의 기회」였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사실 국제原油價 인하의 국내 油價반영도에 있어서는 引下分전액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強한게 현실이다。

단지 정부로서는 이기회에 설득력있는「留保의論」으로 국민들의 미진한感을 풀어줬어야 했다。

둘째가 의원으로서 役割인식의 缺如현상이다。여야쌍방이 空轉시키지 않을수없는 어떤 曲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空轉의 전략」으론 黨略的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웬지 수긍키어려운 옹색한 감을 느끼게한다。

與든野든 商工委의 空轉이 대국적인 國益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黨略的 차원에서 저질러 졌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듯 싶다。

세번째가 행정부의 국회外面현상이다。傳言된바지만 金부총리가 이미 油價국내반영문제에관해 국회經科委에서 자세한보고를 했기때문에 그이상 할말이 없다는 不參論은 좀처럼 이해가되지않는다。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를 저버린 商工委의空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수는없다는 전제에서 그책임은 누구에게있는가를 곰곰 생각케하며 與野、그리고 행정부측모두 깊은반성이 뒤따라야할것이다。

【李成俊정치부次長대우】

政局往來

"여당을 民主政黨으로 끌고 가는게 野黨보다 훨씬 힘들다"

◆비가 필요할때 단비내려사가와

全斗煥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3일상오 청와대를 예방한 말레이지아의 아마드·샤國王내외를 현관에서 따뜻이 맞은뒤 이어 소접견실에서 잠시 환담。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왕비께서 어제밤 잘 주무셨느냐』고 인사를 건네며 『우리는 요즘 비가 필요한 때인데、어제 국왕내외가 도착했을때는 날씨가 갰고 오늘은 이처럼 단비가 내려 반갑다』고 말했다。

아마드·샤국왕은 이에대해 『말레이지아에는 降雨量이 충분하지만최근일부지방은 가뭄을 겪고있다』면서 『날씨는 섭씨 28~35도로 항상 덥다』고 答禮。

양국원수는 환담이 끝난뒤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기념촬영을 하고 선물을 교환。

全대통령내외는 아마드·샤국왕내외에게 크리스털 그릇 1점과 전기스탠드 1쌍을、국왕내외는 全대통령내외에게 銀製고무나무조각 1점과 銀製화병 1점을 각각 선물했다。

◆黨舍의「民主의색깔」꼭지켜야

23일상오 民正黨중앙당사에서 거행된 新·舊대표위원 離就任式에서 李載瀅전대표는 告別辭를 통해 『여당을 民主政黨으로 끌고가는것이 야당을 民主政黨으로 끌고가는것보다 훨씬 힘들다는것을 실감했다』며 『그러나 여당을 民主政黨으로만드는 작업은 기필코 5공화국에서 완성해야한다』고 강조。

그는 또 『그동안 우리는民正黨舍를 파란 민주의 색깔로 칠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다만 최근 2~3週사이에民正黨舍의 색깔을 다른색깔로 칠하려는 경향이 있어 나는 民主의 색깔을 꼭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陳懿鍾 신임대표는 『그동안李전대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뒤 『원만한 黨의 운영을 위해서는 당직자와 소속의원 모두의 人和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감정대립이나 不協和音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것을 알아야한다』고 역설。

新·舊대표는 式이 끝나자 黨舍 6층의 대표위원실로올라가 잠시환담을 나누었는데 李前대표는 방에 들어서면서 陳대표에게『이젠 여기 앉으셔야죠』라고 권하며 옆자리에 앉았다。

이자리에서 李前대표는『이젠 옛날식으로 落鄕은 해야겠는데 고향은 公害가 심해서…』라고 말하자 鄭石謨政策위의장이『鷄龍山밑이어떻습니까』고 말했고 李鍾贊총무도『木川이어떨까요』라고 웃으며 권하기도。

한편 陳대표는 李前대표를 개정된 黨憲上의 常任顧問으로 모시기위해 당사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편 승용차도 대표시절에 쓰던것(그라나다)을 그대로 사용토록하고 陳대표를 위해서는 1천5백만원을 들여 같은型의 승용차를 구입。

◆與野、商工委空轉에責任轉嫁급급

油價인하문제등을 다루기로 했던 22일의 국회商工委가 金埈成부총리 출석을싸고 10여시간의 마라톤停會끝에 空轉、끝내不發되자 與野는 서로 책임 轉嫁에 급급한 인상。

그동안 黨職改編에 정신을 쏟았던 民正黨 당직자들은 22일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黨소속 상공위원들은 『의원이 국회를 열기로하고 출석에 不應하는 것은 직무유기행위』라고 꼬집은데 반해 民韓、국민당은 각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空轉책임은 정부여당의 『국회 輕視와 무성의한 자세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주변에서는 空轉사태를 놓고 『商工委에서 油價문제를 다뤄봐야 이익이 될게없다』는 民正黨의 입장과 부총리가 참석않는 상공위에서 기름문제를 따져봤자 이익볼게없다는 야당의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진게아니냐』는 분석이 나돌기도。

柳致松民韓黨총재는 이날상오 총무단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고 『油價문제는 경제기획원이、경제문제는 부총리가 관장하면서도 소관常委가 아니라고 이핑계 저핑계로 출석을 기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결정권밖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따져본들 국민에게 무슨 實益이있겠는가』고 못마땅해했고 李泰九辛相佑부총재도『온국민의 관심사인 油價가 어떻게 야당만의 黨內문제냐』고 반박했다。

◆政策개발위한정책세미나열기로

국민당은 오는25일 소속의원전원과 일부지구당위원장및 사무처요원들이 참석한가운데 정책세미나를열고 4명의 대학교수들로부터 정치、경제관계 강연을 들을예정。

지난22일 소속의원 부인과 여성중앙위원들을 모아놓고 金在恩교수(梨大)로부터「현대사회의 가정관리」란 주제의 강의를 들은 국민당이 또다시 세미나를 갖기로한것은 4월임시국회에 대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에서 나온것으로 『이번세미나에서 다룰 4개議題는 금년중에 실시할 22개정책연구과제중 첫번째 과제』라고 趙容直사무차장이 설명。

<임시총회>

지루한 겨울도 가고, 약동하는 희망의 새 봄을 맞아, 동문여러분 가정에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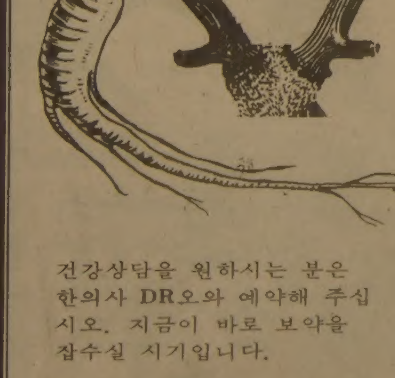
금번 모교에서 보내온 교기를 받고, 동문을 한자리에 모시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부동반하셔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 4월2일(토) 오후6 : 30
장 소 : 남강식당(☎923-3060)
920 Yonge St.
(North of Bloor)
연락처 : 부회장-김봉균 전화: 267-5550
부회장-호해용 전화: 625-0561
총. 무-이상휘 전화: 247-9004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장 권병구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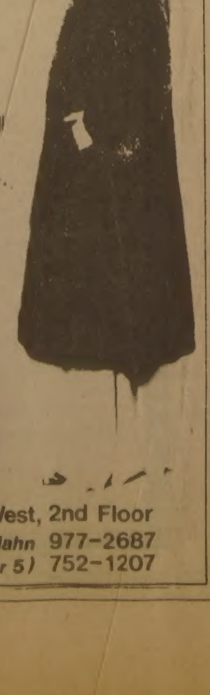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모피

Designed by Max Chatman New York



뉴욕의 맥스·채트만씨가 특별히 동양인의 체격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작된 모피는 공장가격으로 여러분께 봉사하며, 사신후에도 계속 모피관리를 위해 도와드립니다.

I.S.MILLER FURS
363 Adelaide Street West, 2nd Floor
Call, Miyo Hahn 977-2687
(After 5) 752-1207

베긴政權、또 窮地에

野黨후보 헤르조그 大統領당선으로

人氣하락 聯政붕괴 위기 / 레바논協商등 妙策 없어

이스라엘야당인 노동당의 하임·헤르조그前유엔대사가 22일 의회비밀투표에서 베긴수상이 미는 메나헴·엘론후보를 물리치고 제6대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베긴현정권을 당혹케하고 있다.

내각책임제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고 주로 의식을 집전하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헤르조그의당선은 지난달 팔레스타인난민촌학살사건의 査問案 보고서로 한때 휘청했던 베긴정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또한번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앞으로의 이스라엘정국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前兆로 평가되고있다.

베긴수상의 리쿠드·국가종교당(타미)聯政은 그간 여러번 아슬아슬한 위기를 곧잘 넘겨왔으나 베긴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난제들은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된 현상황에서 야당후보의 대통령당선이 주는의미는 중요하다.

베긴수상은 격화되는 인종분규, 경제난국, 레바논협상의 정체, 對美관계의 악화등 한결같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81년총선이후 이스라엘사회가 유럽系이주민인 아쉬케나직 (Ashkenazic)과 북아프리카중동系출신인 세파딕 (Sephardic)으로 갈라져 벌이는 인종분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총인구의 60%이상이 세파딕으로 정치·경제적인 지위가 낮은반면 아쉬케나직은 권력과 富의 핵심을 이루고있어 세파딕의 불만은 反베긴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헤르조그의당선도 그 단면을 보여준것. 사실상 베긴의 강력한 경쟁자로지목됐던 나본현대통령은 세파딕이었으나 이번의 두후보는 모두 아쉬케나직이었기 때문에 세파딕의 국가종교당이 반란을 일으켜 야당후보를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후보의 패배후 베긴측근의원들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종교당을 자신의 이익밖에 모른다고 비난하고 나섰는가하면 앞서 로니에·밀로국회부의장은 엘론이 낙선할경우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위협하는등 대통령선거로인한 파문은 국가종교당의 聯政이탈까지몰고가 베긴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베긴수상은 국가종교당이 이탈, 야당인 노동당과 연합할 움직임을보일경우 재빨리 그의장기인 내각총사퇴에따른 총선으로 끌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미국과는 미묘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샤론국방상이 물러났다고 하나 현재 내각에 머무르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후임인 아렌스국방상도 강경한 인물인 이상 베긴 정권으로부터 레바논 철군협상과 미국의 중동평화안을 실현시키는데 더이상 협조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레이건美행정부가 베긴정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당의 집권을희망하고있다는것은 이미 공공연한비밀로되어있다.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는 나본이 수상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아니라 나본지지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베긴을 권좌에서 끌어내릴수있는 유일한 감자로 나본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지난12월 개최이후 계속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철군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베긴정권은 레바논에서 안전보장지역을 확보하지 않는한 철군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없는 이스라엘이고 보면 베긴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것이다.

더우기 지난해 레바논침공으로 소비된 막대한 군비때문에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경제난국도 베긴정권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이다.

그러나 베긴정권의 이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노동당이 쉽게 집권하기는 어렵다. 노동당은 페레스당수와 라빈전수상사이의 오랜 개인적 싸움으로 분열되어있고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인기 또한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치러질 경우 베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만도 아니다. 【奎海雲기자】

◇22일 예루살렘에서 노동당의 차기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하임·헤르조그씨㊧와 메나헴·사비드로국회의장이 건배하고있다. 【예루살렘22日AP聯合=聯合】

佛 미테랑 戰鬪내각 出帆 經濟難 뚫는다

閣僚20명줄여… 새人物 없고 / 急進派 탈락、온건政策 지향

◇수상에 재임명된 피에르·모로와 프랑스수상이 22일 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과 만난후 엘리제궁을 나서고있다. 【파리22日AP聯合=聯合】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새로운「전투내각」을 출범시켰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10일만에 피에르·모로와수상내각의 일괄사표에 이어 즉각 구성된 새로운 내각은 35명의 각료수가 15명으로 축소됐다. 경제문제와 싸우기위한 결사대와 비슷한 성격의 새로운 내각이다. 공산당소속 각료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지방선거에서의 패배와 프랑貨의 평가절하로인해 당초 경질이 예상되던 모로와수상을 재지명함으로써 미테랑은 불투명속에서 지속성을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출범22개월만에 이루어진 개각이 단순한 지속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개각에서 각료수를 줄이면서 급진적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인물들을 대거 탈락시켰다는점은 미테랑이 보다 온건한 정책으로의 타협을 모색하고있다는 분석을 낳게한다.

이번 개각에서는 또한 한명도 새로운 각료가 등용되지 않았으며 가스통·드페즈 내상, 블롱드·셰송외상등 요직에도 자리변동이 없었다.

모로와수상은 이번의 개각이 과도한 무역적자, 높은실업률 및 인플레와 싸우기위한「전투내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 모로와수상과 함께 경질될것으로 예상되던 자크·들로르경제·재정상이예산부까지 맡으면서 재등용된것은 미테랑이 경제담당각료들을 한지붕밑에 모아놓고 지혜를모으면 경제난국을 타개할수있다고 믿고있기 때문인것같다.

들로르는 경제정책에서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정치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유럽통화제도개편에도 참가, 프랑화의평가절하를 단행케했다.

사회당과 함께 연립정부에 참여하고있는 공산당은 마르셀·리구 직업훈련상과 샤를·피테르망 운수상 두각료만 유임되었는데 개각이 있기 직전 모로와수상은 마르셰공산당수와 1시간동안 협의했다. 이번 개각으로 공산당과 사회당 사이는 좀더 멀어질 소지를 남겨놓은 듯하다. 【朴來富기자】

메아리

서울市 새廳舍

金昌悅 <編輯委員>

서울시 청사를 옮기네 마네 하더니만, 이번에는 지금자리에 15층 새 청사를 신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좀 느닷없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지금의 서울시청은 57년전 (26년) 일본사람들이 지었다. 대지 4천4백93평에, 당초 건평은 3천8백평, 그뒤 몇차례 증축을 거쳐 지금은 5천5백평을 넘는다. 그래도 서울시의 기구를 감당못해 여러 局課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그런만큼 시청을 새로 지어 市政기능을 한곳에 집중하자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경찰국과 교육위원회도 한군데 모을수 있는 청사를 짓고, 地方自治制를 내다보며 市議會자리도 잡아 놓아야 제격일 것이다. 그러자면 새청사는 건평이 2만평쯤은 되어야 한다.

이런 구상은 마다할것이 없겠으나, 문제는 새청사의 「자리」와 새청사를 지을 「돈」이다.

60년대 서울시는 汝矣島 동쪽 끝, 국회의사당과 마주보는자리에 새청사의 靑寫眞을 그렸었다. 그러나 이터는 어물어물 팔아버린지가 오래다.

70년대말에 들어 서울시는 江南으로 옮겨가기로 새 방침을세웠다. 그에따라 瑞草洞3만2천평부지를 확보하느라 1백억원이상의 돈을들였다.

그러던것이 작년5월 정부의수도권 건축규제에따라 이계획도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로부터 열달이 채 못돼서 이번에는 지금 시청자리에 새청사를 짓는다는말이 나왔으니, 서울시가 만사에 조급한줄은 알지만, 좀 지나치다는인상이다. 정부의 건축규제방침은 어디 갔으며, 왜 瑞草洞에 돈을 내다 부렸는지도 궁금해 진다.

서울시의 새구상이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청부지는 쓸만한 새청사가 들어앉을 만큼 넓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그자리에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으면, 市政기능— 그것도 10년, 20년앞을 생각해서—을수용할만 할까. 그 자리에 그런 건물을 짓는것이 도시계획에 합당할까.

그보다는, 그런 청사를 지을돈이, 올림픽과 지하철에 쫓기는 서울시 어디에 있을까. 있다면 다른데 더 급히 쓸데는 없을까. 또 그만한 세금을 쓰자면, 세금낸 시민들과도 의논을 해야하지 않는가.

의문이 여기 이르러 한가지「先例」가 생각난다.

미국 北다코타州의 州都는 비즈마크다. 인구 3만4천의 작은 도시이나, 19층의 州청사가 자랑이다.

비즈마크는 1883년 다코타·테리터리 (準州)의 수도가 됐다. 그와함께 州승격 (1889년)에 대비하여 州청사를 定礎했다. 그 때의 비즈마크는 생긴지 5년, 인구 7천명의 붐타운이었다.

그 때의 賀客중에 귀빈이 한 사람 있었다. 학자이자 외교관이며, 나중에 「美州聯邦」이란 책을 낸 영국인 제임즈·브라이스卿 (1838~1922)이다. 그는 그 定礎式의 감명을 저서에 적고있다.

브라이스卿이 본 州청사자리는 시내를 1마일이나 벗어난 둔덕이었다.

『왜 이런 자리를 잡았소? 청사주변을 공원으로 꾸밀 작정인가요?』

궁금해서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천만에-. 여기가 都心이오. 앞으로 비즈마크는 이 쪽으로 발전할테니까요』

화강암으로 지은 비즈마크의 19층 州청사는 그로부터 50년이지난 34년에 완공됐다. 그 자리가 지금은 비즈마크 중심지다. 브라이스卿이 1백년전에 들었던 예언 그대로다.

브라이스卿을 감동시킨것은 그처럼 앞을 보고 일을 꾸미는 미국開拓者들의 자세다. 시장이 바뀔적마다 시청자리가 바뀌는 고장에서는 아예 볼래야 찾을 길 없는 美德이다.

새삼 브라이스卿의 감동을 되새기는것은 정부의「禁令」을 구멍내면서까지 새청사를 지어야겠다는 서울시 태도가 너무 다급해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간부중에는 올림픽都市의 체면을 그 이유로 드는 이가 있는 모양이나, 올림픽은 새 청사 없이도 성공할수가있다. 그 보다는 올림픽을 앞두었기에, 새 청사마련을 못한다는 것이 정직의 서울시 재정형편 아닌가.

서울시 새청사가 아무리 아쉽다고 해도, 꼭 올림픽에 대 지어야만 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러니, 새 청사는 올림픽뒤로 미룬다고 확정해 버리는 것이 서울시 형편에 알맞다.

지금은 온힘을 기울여 올림픽에 대비하고 그 성공의 여세를 몰아 새청사를 지어도 늦지는 않다. 그 사이 지그시 생각하고 뜸을 들여서, 그야말로 紀念碑的인 청사를 짓는것이 분별있는 市政이아닌가 한다.

空轉드라머 10時間

國會 商工委

"뻔한들러리…참석못한다" 野 / "會議거부는 職務유기다" 與

○…11代국회 전반부의 마지막 상임위인 22일의 상공위는 子正까지 장장10시간동안 정회를 계속하는 空轉끝에 이날밤12시께 정부측의 보고를 자료접수로 끝내며 파란끝에 散會.

11代국회들어 드물게보는 跛行의진기록을 세운 이날의 상공위는 회의벽두 金順圭의원 (議同)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의사일정중 수입자유화 정책을 油價정책에 앞서 다루기로 한것은 당면 국민적관심사를 외면하는처사』라며 의사일정의 재조정을 요구. 이어李元範의원 (民韓)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動資部는 정책의 立案과정에 참석치도않은 경제기획원의 朝令暮改式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고있다』고 비난하면서 金埈成부총리의 출석을 요구.

야당측의 잇단 공세에부딪치자 李台燮위원장은 정회를선포,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與野의원들은 감정섞인 場外舌戰만을 거듭. 民正黨의 鄭善昊간사가『야당이 상공위소집을 요구해놓고 정부보고 청취를 거부하는것은 자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자 民韓黨의 柳在熙간사는『뻔한 들러리행위인데 정부정책을 더이상 합리화시켜줄수는 없다』고 응수하면서 金부총리의 출석을 거듭 요구.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李위원장은 金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걸어 참석여부를 타진했으나『이미 經科委에서 자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이상 할말이 없다』는 강경반응에 부딪쳤다.

李위원장은 이어 民韓黨의 林鍾基총무에게 소속의원들을 설득해줄것을 요청했으나 林총무는『상공위 소관』이라며 냉랭한반응.

정회상태가 계속되면서 與野의원들의 감정도 고조되기 시작,『더이상의 회의거부는 직무유기다』『그러한 발상이 심각한 문제다』고까지 발전하면서 쌍방이 모두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팽팽한 대립.

○…이날밤 9시께 李鍾贊民正黨총무가 등청하면서 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등 3당총무들은 총무회담을 갖고 실마리를 모색.

특히 李民正총무의 再任이 발표되었기때문인듯 이날의 회담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운 가운데『정부·여당으로서는 국민 납득이 필요하고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이 한결높다』고 의원들은 관측.

20여분간의 회담이 끝난뒤 林民韓총무는『오늘은 주무부처의 보고만듣고 25일경과·상공 연석회의를 열것을 제의했으며 李民正총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낙관론을 표시. 林총무는『더이상의 오락가락은 죄의식을 갖게된다. 李民正총무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추켰고 옆자리의 李국민총무는『李民正총무도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깊은관심을 갖고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

그러나 李民正총무는『야당이 상임위소관사항을 총무회담에 떠넘기는 것을 보니 伏線이 있는게 아니냐. 도깨비에 홀린것같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갸우뚱.

뒤이어 民正黨은 운영위원장실에서 民韓黨은 원내총무실에서 총무회담을 바탕으로 각각 대책을 논의했으나 분위기는 예상외로 경색돼 원래의 입장에서한치의 양보도없는 팽팽한처지를 고수. 끝내 합의를 보지못하자 民正黨은 이날밤 11시50분께 회의속개를 결정, 국민당과 議政同友會의원들을 참석시킨가운데 정부보고는 제출된자료로 접수한뒤 산회를선포.

이에 李圭正의원(議同)은『회의를 정당히 하라』고 마이크를 들어 책상을 치자 民正黨의원들은『소수의 횡포』『우리도 할말이있다』고 맞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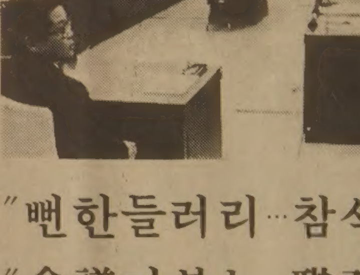
○…밤12시께 산회를 한뒤 李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民韓黨은 처음부터 金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강경입장으로 회의를 자정까지 공전시켰다』며 책임을 야당측에 전가.

李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民正黨은 주무장관의 얘기를 들은뒤 미진한 부분은 후에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民韓黨이 거부했다』고 계속 비난하면서『이는 변칙적행위로서 기본의무를 저버린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고 공격.

이에 柳在熙 民韓黨간사도『우리도 말좀해야겠다』고 포문을 연뒤『23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원유가가 인하되었고 인하분의 반영비율은 전세계의 관심사이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부총리의 출석요구는 당연하다』는 民韓黨의 입장을 설명.

뒤이어 국민당의 林德圭의원은 옵서버임을 전제한뒤『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金順圭의원 (議同)은『民正黨과 民韓黨의 異見으로 불행한 결과가 됐다. 상공위는 11代국회에 악명높은 위원회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싸잡아 비난.

각당의 소신발표 퍼레이드가 끝나자 李위원장은『마지막 상임위라고 볼수있는 상공위를 공전시킨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몹시 섭섭한 표정.



◇金상공 "獨守空房" 空轉한 22일의 국회商工委의석. 의원들은 다 어디를갔는지 의석은텅비었고 金東輝상공부장관만이 자리에 나와있다.

◇성급히 선보인 83~84秋冬服쇼 한모델이 22일 파리에서 선보인 83~84년 秋冬기성복컬렉션중의 한 실크나이트가운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있다. V자로 패인 앞가슴과 넓고 느슨한 소매가 돋보이는 이 가운은 프랑스패션디자이너 다니엘·에치트의作品. 【파리22日AP聯合=聯合】

蘇、賃金과 생산성 連動

봉급외에 보너스도支給

소련정부는 임금을 생산성에 연동시키고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새제도를 실험중이라고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가 22일 보도했다.

금년부터 3년간 레닌그라드의 몇몇공장에서 실시중인 이실험은 일정한 직위를 [illegible]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프라우다는 임금—생산성 연동제에 대한 실험에 따라 레닌그라드의 공장들은 각노동자들의 봉급을 개별적으로 할당받는 대신 노동자전체의 봉급총액만을 할당받게 된다고 전했다.

프라우다는 또 이제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봉급외에 생산방법 개선에 직접적으로관계된 사람이나 어려운 작업을한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外信】

海外토픽

美서 나치戰犯감싸

★蘇 검찰次長이 비난

미국은 나치전범들을『감싸고』있다고 소련검찰차장이 주장.

그는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워싱턴은 소련이 공들여 만들어 제공한 1백40명의 나치전범에 관한『반박할 수없는』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

그는 [illegible] 지난5년간 미국·서독·호주및 네덜란드에 서방으로 숨어들려는 나치전범에 관한 모두 6천件의 증거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미국이 이자료에서 지적되고 있는 1백40명을 인도하지 않은채 감싸고 있다고 주장.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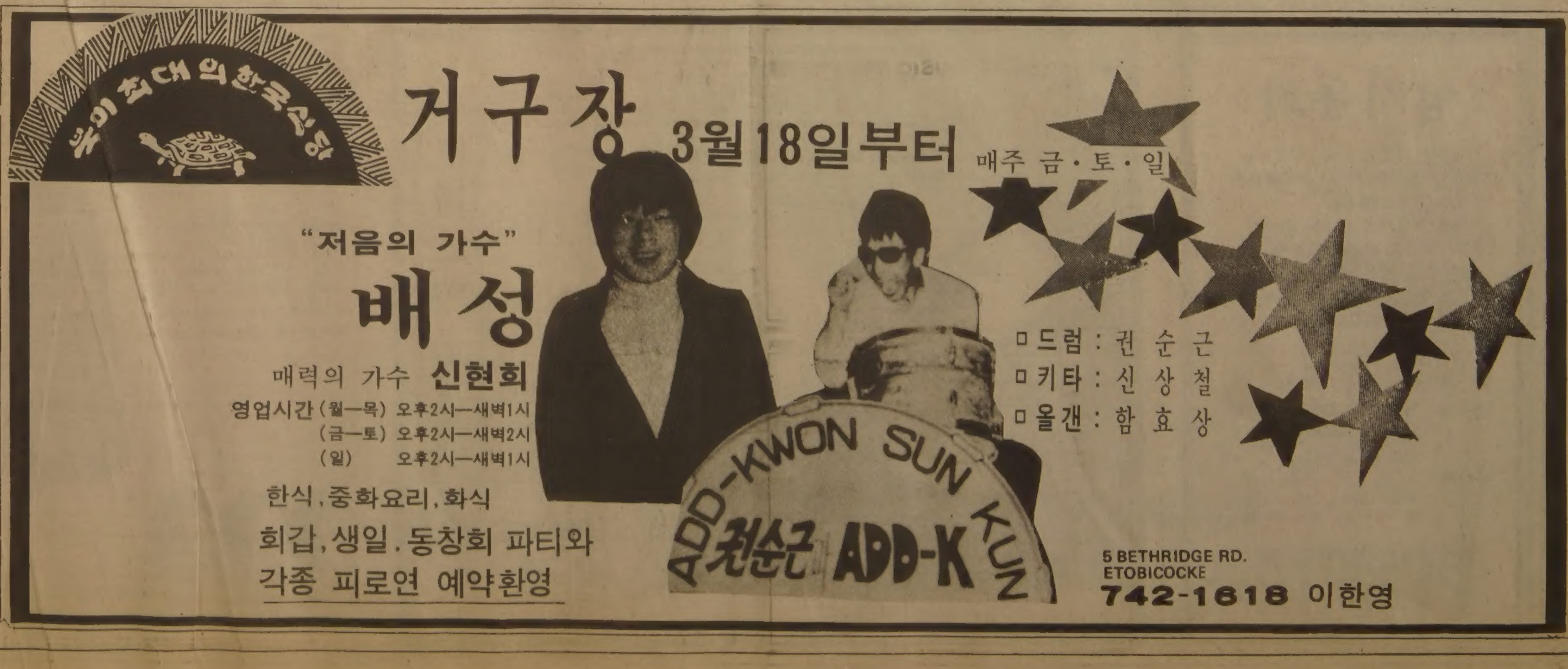
自動車배기가스 有毒性

지능개발에 큰장애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유독성 납성분 때문에 런던에 거주하고있는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 크게 위협을 받고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최근 런던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납성분이 함유돼있는 이 유독성 배기가스가 현재의 수준대로 계속 방출될 경우 이 배기가스에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어린이들의 지능에심각한 해악이 끼쳐지게 된다는것이다.

현재 미국·소련·스웨덴·호주등 적어도 선진5개국에서는 자동차용 휘발유에의 납첨가물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外信】



進一步… 소비자 보호운동 「男性」도 본격參與

여성主導등 소극자세脫皮

敎授·변호사·言論人등 앞장

우리의 소비자보호 운동도 이제는 제궤도를 찾아가는것일까.

지난 50년대부터 시작된 소비자운동은 그동안 YWCA등 주로 여성단체에서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정지작업을 펴왔으나 「본격화」라고말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 「남성」들이 소비자보호운동에 적극참여하기시작,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것.

남자들이 중심이된 소비자보호단체에는 대학교수, 경제학박사, 식품화학박사, 변호사, 언론인등 거물급들이 대거 참여하고있는데 단순한 불량품고발등 소극적인 소비자보호운동에서 탈피, ▲전국적인 상품정보제공 ▲범시민적인 불매운동 ▲올림픽을앞둔 질좋은 국산품개발등 적극적인 운동을 표방하고있어 크게 주목된다.

23일현재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남성위주의 소비자보호단체는 한국 공익문제연구소(대표 印縉模)와 한국 소비자문제연구원(대표 安台鎬)등 2개단체.

이같은 남성주도형 소비자보호운동은 이들 2개등록기구외에도 변호사가 발기인인 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등록을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정부당국도 이들남성소비자단체에대한 지원계획을갖고있어 남성들에의한 소비자 보호운동은 활동하기도전에 뉴스의초점이 되고있다.

한국공익문제연구소와 한국소비자문제 연구원은 금년부터 이론을 바탕으로 강력한 소비자보호운동을 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가정경제학교수·식품·화학관계교수와 변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모여 소비자보호운동에나선 한국공익문제연구소는 정부나기업에의해 축소의미로 쓰여왔던 소비자보호개념을 본래대로확대, 정립시켜 소비자단체행동까지도 유도해나갈 태세를 갖추고있다.

이 연구소는 금년부터 국내유수기관에 상품테스트를 의뢰한뒤 정부기관에서 재검사를거쳐 불량상품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들에게 공표하는 한편 남성이 주로 소비주체가 되는술·담배·남성의류등에대한 과감한 상품테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행소비자보호법의 맹점보완과 소비자교육를 통한 소비자권익신장까지도 펼 계획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활동에나선 공익문제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소비자운동=여성운동의 관념을깨고 소비자들도 느끼지 못하는 관련법규등에까지 폭넓게 조사, 정부와 기업들에 건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각계권위자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소비자보호단체가 30개가 넘고 30년동안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아울러 상품의 질적 향상을 주도해왔다』고 말하는 印소장은 이 연구소가 공신력을 갖고 과감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는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문제 연구원도 자체테스트기능을 갖고 상품의질을 분석하는 단계를목표로 한국공익문제연구소와 비슷한 사업계획을 갖고있다.

이연구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등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가진 권위자들로 구성돼있는데 메스미디어를통해 소비자의식구조를 개선,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고발형소비자보호형태에서 탈피해 미국의상품테스트형, 서구의 소비자협동조합형의 체제를 유도할 채비를 서두르고있다.

安원장은 궁극적으로 자체실험기능을 갖춰 소비자운동을 소비자가 느낄수있도록 범국민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安원장은 또 『일본의 경우 통상성 산하에 「국민생활정보센터」를두어 1년에 30~50억엔의 예산을 마련, 소비자를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정부당국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산을늘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에 나서야할것이라고 밝혔다.

【朴珍洌기자】

競落알선 4천9백만원받아

朴永復 담보건물… 브로커 셋拘束

서울지검수사과는 23일 거액부정대출사건의 주범 朴永復씨의 내연의처 소유인 서울鍾路區苑南洞「학산요정」이 법원경매에 붙여진것을알고 법원경매담당직원에게 선을대 싸게경락받게 해주겠다면서 경락희망자로부터 4천9백만원을받은 경매브로커 金○烈씨(43·서울鍾路區瑞麟洞77의1)와 金光生씨(41·전학산요정지배인)·金守洪씨(46·서울鍾路區雲泥洞)등3명을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金○烈씨는 지난해 10월초순께 서울鍾路區 서린호텔 코피숍에서 金光生·金守洪씨로부터 한국신용보증기금 신청으로 서울민사지법에서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서울鍾路區苑南洞189의1 학산요정 건물 3층가옥(대지 1백40평, 건평 1백27평 시가 4억)을 李恒宰씨(요정 우정주인)앞으로 2억원범위내에서 경매담당공무원에게 청탁, 경락받도록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것.

金씨는 그해 10월10일상오 11시께 서울민사지법113호 경매법정에서 李恒宰씨를 대리해 응찰, 李씨앞으로 1억7천1백만원에 경락되게 한다음 그달20일 하오1시께 서울鍾路區淸進洞 서울호텔 주차장에서 李씨로부터 청탁교제비및 수고비명목으로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金光生씨와 金守洪씨는 李恒宰씨에게 경매브로커 金○烈씨를 소개해주고 각각 1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문제의 가옥은 현재 형집행 정지로 풀려 나와있던 朴永復씨의 내연의처 李順禧씨 명의로 돼있었다. 朴씨가 지난81년 한국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벌일때 담보로 맡겼던것으로 朴씨와 李씨는 지난해4월 구속됐다.

반포大橋서 戰警이 武裝탈영병 붙잡아

23일 상오6시10분께 서울龍山區 盤浦대교에서 M16소총과 실탄 1백93발을 갖고 부대를 이탈,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나던 육군 모부대 소속 李광수일병(23)이 盤浦대교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서울龍山경찰서 소속 전경 대원 金泰權수경(21)과 총격전끝에 붙잡혀 군수사기관에 넘겨졌다.

李일병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부대를나와 경기 高陽郡 한국항공대학 앞길에서 서울4과4507호 택시(운전사 李景植·39)를 세운뒤 운전사 李씨와 앞좌석에 타고있던 승객 강경순씨(23·여·서울城北區吉音洞537)에게 총을 드리대며 위협, 淸潭洞까지 갈것을 요구하면서 뒷자석에 올라타 水色·新村을 거쳐 盤浦대교검문소에 이르렀다.

한편 방범등을 켠 택시에 스포츠머리를 한 20대청년이 탄것을 수상히 여긴 金수경은 뒤따라오던 빈택시를 잡아타고 李일병이 탄 택시를 뒤쫓아가 盤浦대교 남쪽끝에서 택시로가로막아 차를세웠다. 金수경이 검문하려하자 李일병은 M16 3발을 허공으로 발사한후 金수경에게 겨누었는데 이때 金수경도 지니고있던 권총(공포3발)을 쏜뒤 택시문을 열고 운전사 李씨의 도움을 받아 붙잡았다.

李일병은 부대에서 범죄를 저지른뒤 탈영한것으로 알려졌다.

國産茶수거 有害여부 檢定

보사부는 23일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차의 유해여부를 가리기위해 홍차·생강차·쌍화차등 15종류의 각종 국산차 30개품목을 수거, 국립보건원에 검정 의뢰했다.

보사부는 현재 각종 국산차가 일정한 허가기준이나 규격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자가규격기준만으로 제조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나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국산차에 대한 검정에 나선것이다.

보사부는 이번 국산차의 화학악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국산차제조및 검사기준과 잔류농약허용치등을 제정키로 했다.

趙棋聖、4월2일歸國

趙治勳 棋聖·名人·本因坊·十段(26)이 4월2, 3일 귀국한다.

趙棋聖은 24일의 十段戰도전제2국과 天元戰 본선토너먼트전을 끝낸뒤 4월초 일단 고국을 방문하고 4월16일부터 20일까지는 林海峰9단과함께 臺灣을 방문할 예정이다.

趙棋聖은 빠듯한 스케줄에 얽매어있으나 31일 天元戰본선토너에서 구도(工藤紀夫)9단과 대국한뒤 틈을내 한국을 1박2일정도 방문하며 4월5일에는 十段戰도전제3국을 두게된다.

국방문중 한국전문기사와의 속기대국은 둘 계획이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南海岸 선박 발묶여

波浪주의보·안개로 千여척 대피

【釜山·木浦】23일 상오6시부터 남해서부·동부및 서해남부해상에 내린 파랑주의보와 안개로, 부산항과 木浦·麗水항에는 여객선등 각종 선박들이 대피, 섬등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다.

부산항에는 이날 상오7시 현재濟州간 전천후 여객선 카페리를 제외한 부산연안의 전여객선 운항이 중지됐다.

이로인해 부산 연안 터미널에는 상오7시 忠武―南海·麗水행 엔젤호와 長承浦행 페리스호등을 이용하려는 3백여명이육로를 이용하는등 불편을 겪었다.

木浦항에는 木浦―黑山島등 연안여객선 40여척을 비롯, 각종 선박5백여척이 출항못해 각도서로 나갈 3천여명의 승객들이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있다.

新安郡 小黑山島항에는 동지나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공어선1백척이 대피하고있는 것을 비롯 인근 항포구에도 1천여척의 각종어선들이 대피하고있다.

麗水항에는 麗水―거문도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14척등 각종 선박 3백여척이 출항이 금지된채 구항과 국동항에 묶여있다. 【聯合】

모든 醫藥品의 藥効能보증위해

使用기간표시 義務化

보사부는 23일 모든 의약품에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했다.

보사부는 우선 새로 제품허가를 받아 시중에 나오는 의약품에대해서는 반드시 약효를 보증할수있는 기간으로 「사용기간」을 표시토록 하는한편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의약품도 단계적으로 사용기간의 표시를하도록했다.

시중에 나와있는 기존의약품은 지금부터▲즉시 표시해야하는것▲3개월이내▲또는 6개월이내로 표시해야하는 것등 3가지로 구분토록했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의약품이 약효를 보증하는 사용기간을 명시하게돼 소비자는 내년부터 서울약국에서 마음놓고 약품을 구입할수 있게 됐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국산의약품가운데 상당수가 사용기간 표시가 없는데다 이를 시판하고있는 일부 약국에서도 의약품에따라 각기 다르게마련인 보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고있어 소비자들이 약효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약화의 우려가있는 약을 사는수가 많았기 때문이다(본보11일자사회면 톱).

보사부는 사용기간 표시는 제약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현재 시중의 의약품중 비타민류등의 영양제,효소제제(영증 완화제·소염제)는 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전체 약품의 12.5%에불과한 실정이며, 혈액제제, 백신과 항생제등 국가검정약에는 사용기간과 다른「유효기간」이 표시돼있다.

현재 시중의 의약품중 사용기간이 잘못돼있거나 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를금지하고 표시돼 있는지의여부를 조사하며 적정하게 제품의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戰歿용사 추념식 「팀스피리트83」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美25사단 장병들이 23일상오 春川市 江原어린이회관에서 6·25참전 전사한 이부대 전몰용사 14명에 대한 추념식을 가졌다. 【春川=聯合】

경매방해혐의의 韓一합섬 理事

調査받다 卒倒중태

23일 상오0시께 釜山中部경찰서에서 치안본부 수사1과 金萬熙경위(38)로부터 조사를 받던 韓一합섬이사 金根祖씨(45)가 졸도, 釜山大病院으로옮겼으나 중태다.

金씨는 22일상오10시께 서울본사에서 釜山으로 연행돼 경매방해혐의로 조사를 받고있었다.

치안본부는 金경위가 조사중가혹행위를했는지의여부에 대해 조사중인데 가혹행위가 밝혀지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強盜에 부부被殺 어제새벽 東海市서

【東海】23일새벽 4시께 강원도東海市北坪洞 6統1班 홍순화씨(62)집에 강도가 들어 잠자던 홍씨와 홍씨의 부인 김임내씨(61)를 흉기로 찔러 모두 숨지게하고 달아났다.

이웃에 사는 홍씨의 동생 홍수호씨(52)에 의하면 잠자고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나면서 『사람살리라』는 소리가 나 뛰어나가보니 홍씨가 피투성이가 된채 배를움켜쥐고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쓰러져 집으로달려가보니 형수인김씨는 가슴과목을 흉기로 찔려 이미숨져있었다는것. 【聯合】

트럭墜落 넷死傷

【春川】23일상오10시10분께 강원도春城郡西面梧月里 월월교에서 삼익제지소속 강원7라1222호 2.5톤타이탄트럭이 높이 8m다리아래 자갈밭으로 추락, 운전사 신현국씨(27·春川市後坪洞2統2班)가 숨지고 타고가던 김정호씨등 3명이 경상을입었다. 【聯合】

트럭-봉고車충돌 전남長城 둘死傷

【光州】23일 하오2시30분께 전남 長城郡長城邑月山洞 호남고속도로 月山간이휴게소앞에서 전북高敞운수소속 전북7아1500호 8톤트럭(운전사 유판석·31)이맞은편에서 오던 대흥식품소속 충남7나9011호 봉고승용차(운전사 金鐵玉·40·大田市東區佳陽洞505의1)와 충돌, 봉고차 운전사 김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신원미상의30대 남자1명이 중상을 입었다.

安昌和 前철도청장 징역3년6월 宣告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安文熹부장판사)는 23일 전 철도청장 安昌和피고인(49)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安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 추징금 1천5백50만원을 선고했다.

전철도건설국장 崔炳吉피고인(53)에게 징역2년 추징금8백30만원을, 전 철도건설국 湖南공사사무소장 鄭原鎭피고인(47)에게 징역2년 추징금 8백7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5行뉴스

◆航母미드웨이 釜山입항 【釜山】팀스피리트83훈련에 참가한 미7함대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6만4천톤·함장 시·알·마이그릴대령)와 호위구축함 후라시스 한몬드(1천1백톤·함장·유니크중령)등 2척이 장병 4천6백여명을 태우고 23일상오10시 부산항에 입항했다.

7함대항모 전대사령관T·F·브라운 소장의 인솔로 입항한 미해군 장병들은 이날 비를 맞으며 대기하고있던 우리해군 9312부대 장병과 많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미장병들은 5박6일동안 머물며 부산·慶州등지를 관광한후 오는28일 부산을 떠난다. 【聯合】

「치어걸」

장학금도 保障받은 李容德양

"아직은 學校·학부모反應 보수적"

스포츠팬들의 기대속에 지난19일 첫선을 보였던 치어걸이 대학당국의 고루한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주축인 淸州사대학생 6명이 활동중지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프로化는 관중과 선수사이에 공백을 꺼린다. 긴장을 풀어줄 양념이 요구된다고할까. 그래서 국내 프로축구실황에서 선메라운드걸이 허리를 꼬며 60초의 틈을 메우는 일이 보편화 될 정도다.

치어걸은 한단계다. 미군TV방송들을 통해서 슈퍼보울이나 농구경기서 미끈한 미녀들의 현란한 춤을 보아왔다.

李容德양(21·사진)은 이중의 한사람. 慶熙大 무용학과 1년생인 그녀는 1m63㎝의키에 34·23·36의 팽팽한 몸매로 그라운드의 「서울 꽃」이 붙잡는 만만하다.

구경꾼 기는 좋지만 치어걸은 군더더기가없는 율동을 보여주기위해 타고난소질과 연습이필요하다.

그녀는 국교때부터 한국고전무용을 배워 水原 永新여고때는 전국학생예술제에서 1등을한 경력도갖고있다.

여기가 치어걸이되기위해 李成子무용연구소에서 체조, 부채춤, 인디언춤, ET춤, 장고춤등으로 현대발레와 체조까지 익혀 율원舞의 새경지까지 들어섰것.

벌써부터 쇄도하는 각업체 주간지, 잡지등의 줄다리기속에 치어걸의 1년간의 장학금까지 약속받았다.

아르바이트로서의 짭짤한 재미보다 그녀에게 치어걸은 스타덤으로 더 매력적일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에선 주1달러의 급료로도 코트에 서기가 바늘구멍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단다.

학부모도 원체 주간지에 나간 원색의 사진에도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는 그녀지만 관중의 첫반응이 몹시 궁금한 모양.

그러나 치어걸에대한 학교나 학부모의 반응은 아주 보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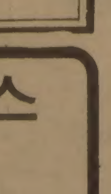
치어걸은 확실히 스포츠의 새 분야이다. 사치나 부도덕의 표상이 아니라 건전하고 발랄한 야외무용으로,스포츠팬을 즐겁게하는 스포츠이기도 한것이다. 치어걸을 살리자. 【蘇熙灌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 생 모 집
(국내·외)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MING AND SYSTEME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을 COBOL, RPGII, BASIC, ACCOUNTING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Mary Street,
5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4Y 1P9

"三美트리오를 조심하라"

프로야구 83시즌 꽃피울 새 스타들

◇鄭求善

◇李英求

◇李潤燮

◇李海昌

◇嚴平載

◇韓大化

韓大化 맹타·金在博도 상승무드
嚴平載·桂瀅鐵 호투、李潤燮 재기

프로야구 시즌·오픈 10일전. 6개구단은 敵地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시범경기를 통해 상대팀전력을 탐색하며 83년 시즌을 꽃피울 새 스타들의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분주하다.

사실상 시범경기는 신진선수 테스트·이상의 비중을 갖고있다. 대부분의 구단들이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 필요이상의 전력을 시범경기에 쏟고있기 때문이다.

시범경기서 보이고 있는 괴력이 정규시즌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승을 원하는 팀은 三美슈퍼스타즈의 황금타선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三美는 새로이 구축한 鄭求善·金鎭雨·李英求트리오로 3차례의 시범경기서 모두 무서운득점력을 보여주었다.

三美의 주포로 자리를 굳혀가고있는 이들 3명의 타자들은 22일 仁川홈구장서 MBC로부터 3연속홈런을 빼앗아 비록 시범경기에서나마 仁川팬들에게 감격을 맛보게했다.

OB구단에서 쫓겨나 三美에 입단한 鄭求善은 22일의 3점홈런을 비롯, 12타수5안타를 날려 3게임에서 5타점, 타율4할1푼6리를 기록했다. 재일동포유격수 李英求는 10타수 3안타로 4할, 포수 金鎭雨는 13타수 4안타로 3할7리를 기록했다. 三星에서 쫓겨난 鄭丘旺도 三美 선두타자로 3게임서 15타수3안타, 3할3푼3리의 타율을 보이고있다.

해태·타이거즈는 在日同胞노장투수 朱東植을 감춰둔채 신인 嚴平載(27)를 OB와의 대전에 기용, 기대이상으로 큰 가능성을 보였다. 구원투수로 6·3회를 던진 嚴平載는 OB의 노련한 23타자를 산발 6안타 2자책점으로 막아 방어율 2.70을 마크했다.

MBC의 李海昌은 2게임에 출전해 6타수 4안타로 6할6푼6리의 최고타율을 마크, 83년 타격왕후보로 지목되고있다. 金在博은 三星과의 대전서 4타수 1안타로 부진했으나 三美의 張明夫로부터는 4타수 3안타를 기록,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三星의 큰 기대가 걸린 강타자 張孝祚는 두게임에서 모두 4타수 1안타에 그쳐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느낌이다.

지난해 주력투수로 활약하던 千昌浩·金文熙등이 아직 제페이스를 찾지 못한반면 투수명을 다한것으로 속단했던 左腕 李潤燮이 절묘한 체인지·오브·페이스로 재기, OB 강타선을 4회동안 13타자 1안타 무실점으로 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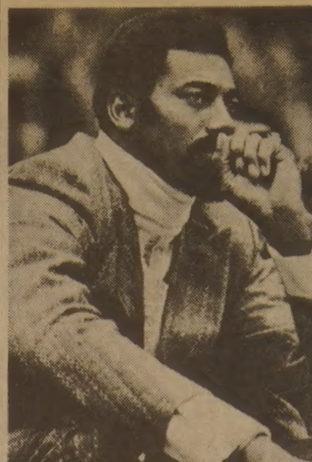
에이스 朴哲淳이 고장난 OB는 뜻밖에 桂瀅鐵이 안정된 속구로, 黃泰煥이 능란한 변화구로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다.

신진 韓大化는 3게임에서 13타수6안타 타율 4할6푼1리로 선배들을 제치고 주전선수를 노리고있다. 시즌 오픈에 앞선 시범경기서는 타석에서 신진 타자들이 맹타를 날리는데 비해 기대를 걸었던 노장투수들이 아직 준비가 덜 갖춰진 탓인지 제몫을 못해 코칭·스태프들의 애를태우고 있다. 【方錫崙기자】

농구의天才 체임벌린 오늘來韓

미국 프로농구 불멸의 슈퍼스타 윌트·체임벌린(45)이 24일 상오 한국에 온다.

야구의 베이브·루드, 축구의 펠레와 처럼 농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체임벌린은 생애최고득점등 기네스·북에 오른 각종 기록만도 30여개가 되는 농구의 천재.



스포츠 焦點

73년 은퇴할때까지 14년간 3만得點
2m15의 巨軀에서 뿜는 덩크슛 일품

59년 필라델피아·워리어즈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체임벌린은 73년 LA·레이커즈에서 은퇴할때까지 14년간 3만1천4백19점을 얻어 최고득점기록을 남겼다.

2m15, 124kg의 거구로 힘에 넘친 플레이를 구사하며 특히 한손으로 볼을 잡고 림만으로 쑤셔넣는 덩크슛은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다.

66·67년엔 세븐티식서즈에게, 71·72년엔 LA레이커즈에 NBA(미프로농구협회) 챔피언 타이틀을 선사했던 체임벌린. 그는 최고득점 기록외에도 2만3천9백24개의 리바운드볼을 잡아 이부문서도 최다기록을세웠다. 61~62년 시즌서는 게임당50·4점을, 62년엔 한경기서 혼자서 1백점을 올리기도했다.

NBA최우수선수로 4차례 선정됐고, 9년간 야투적중률 1위, 11년간 리바운드 1위, 7년연속 최고득점등 찬란한 그의기록은 은퇴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은퇴할 무렵에는 45만달러의 최고연봉선수가됐다.

『농구는 선수들을 불태워버린다. 은퇴에 대비, 가능한 한 많은 돈을벌어라. 명성과 젊음은 곧 사라져버린다』 은퇴하면서 후배들에 이런 교훈을 남겼던 체임벌린은 한동안 프로배구에 투신, 장신을 이용한 강타를 날리기도 했으며 영화제작에도 참여했고 최근엔 LA에 신발체인을 만들면서 프로스펙스와 접촉, 사업가로 내한하게 된 것이다.

조명탑

체임벌린競技일정 招請者 일방결정
"까맣게 몰라"國內농구계 거센 반발

美國프로농구 슈퍼·스타 윌트·체임벌린의 방한스케줄을 놓고 국내농구계는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농구협회와 대한농구연맹은 체임벌린이 국내팬들에게 농구본고장의 묘기를 보여준다는데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경기스케줄을 초청자인 國際商社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국제상사는 25일 하오6시 체임벌린이낀 美8군혼성팀과 三星電子와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는데 대한농구협회나 대한농구연맹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있으며 그런대전을 승인한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농구협회는 체임벌린의 방한경기에 대해 『국제상사의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 장충체육관서 대한농구연맹전이 열리고있으므로 연맹 관계자들과 상의해 보라』고 했다는것. 대학연맹 관계자들은 체임벌린이 한국에온다는 소식은 국제상사를 통해 들었다고 밝히고 경기일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연맹 한관계자는 『경기일정이 확정되려면 이사회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정을 어떻게 발표할수 있느냐』고 노발대발했다. 더구나 연맹과 공식협의를 거치지않고 三星電子와 경기를갖기로했다는것은 경기단체의 權威를 무시하는 처사라는의견이다.

또한 체임벌린과함께 방한하는 동료1명이 美8군과 혼성팀을 이루어 친선경기를 갖는것은 넌센스라고 농구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농구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단체경기다. 체임벌린을 혼성팀에 끌어넣는다고 팀의 기능이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차라리 체임벌린의 개인기나 농구이론, 코치·클리닉을 갖는것이 유익한 것이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閔炳宅기자】

海外스포츠短信

제1회亞·阿경기대회 오는10월 뉴델리에서

【쿠웨이트AP=聯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아프리카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UANON)은 오는10월 印度의 뉴델리에서 제1회 아프리카·아시아경기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쿠웨이트올림픽위원회가 22일 발표했다.

쿠웨이트올림픽위원회는 파드·알·아메드·알·사바 OCA위원장과 아나니·마티아 UANOA회장이 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이 동석한 가운데 그같은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킹스컵복싱 2일開幕

【방콕=聯合】 한국 蘇聯 美國을 비롯, 세계18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킹스컵 국제복싱대회가 4월2일부터 9일까지 방콕에서 열린다고 타이아마추어복싱협회(ABAT)가 22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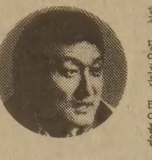
주최측은 북한을 청하지않아 이번대회에서 남북대결은 이루어지지 않게되었다. 선수단을 파견키로 확정된 국가는 한국 미국 소련 동독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베네수엘라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호주등 '18개국이며 서독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멕시코등 8개국의 참가여부는 미정이다.

IOC 오늘 86차總會 LA올림픽 준비 점검

【뉴델리UPI=聯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4일 뉴델리에서 86차총회를 열고 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위원장및 2명의 집행위원을 새로 뽑는등 IOC의 현안을 논의한다.

IOC소식통들은 IOC위원들이 4일간 계속될 이번 총회에서 예정보다 늦어지고있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것이라고 전하고 논란이 돼온 사격경기개최지 결정문제도 거론될것이라고 덧붙였다.

國內첫「總감독」탄생
美都波여자배구감독 李昌浩씨



頂上이끈 공로 평가·人格도 모범적
理事대우 고려중、他팀도 도입할듯

美都波여자배구팀의 李昌浩감독이 국내 배구팀가운데 처음으로 총감독으로 승격, 명예로운 타이틀을 차지했다.

美都波는최근李昌浩감독을 총감독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 오는 4월4일 개막되는실업배구 1차연맹전부터 李감독을 총감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美都波가 총감독제를 도입한것은 오랫동안 美都波를 국내여자배구의정상으로 이끌어온 李감독의 공로를 평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기 위한것.

총감독제는 현재 일본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트레이너·코치·감독위에 총감독을 두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전·현직 여자대표팀前감독 야마다씨 (히다찌팀)와 현감독 고지마씨 (유니티카팀) 등이 소속팀서 총감독직을 맡고 있다.

평소 선수들의훈련과 관리는 감독들이 담당하고, 총감독은 한단계높은 위치에서 팀을 이끌게되는데美都波는 후임감독인선때까지 당분간 李총감독이 감독도 함께맡게된다.

美都波 柳明燮사장은『李감독은 팀에기여한 공로뿐아니라 인격면서도 모범적이어서 총감독직을 맡도록 했다. 총감독에 맞는 대우개선책을 고려중에있다』고 밝혔다.

국내 실업배구 감독들은 소속회사에서 부장급 대우를받고있는데 李총감독의 이사대우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都波의 총감독제 실시에따라 다른 실업팀도 이제도를 따를것으로보인다.

美都波는 몇해전 李감독에게 승용차를 내주었는데 이후 다른 팀서도 감독에게 승용차를 제공했다.

美都波는 70년대 중반부터 80년 초까지 전신인 大農·國稅廳의 전적을포함, 1백83연승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지난번 종합선수권대회 결승전서 現代를 격파, 우승했다. 【金仁奎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노장투수 李源國 한국移籍을 동의
멕시코球團

MBC·靑龍에 입단키위해 귀국한 노장투수 李源國(36)에 대해 前소속팀인 포차·리카구단이 23일 한국에서의 활약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

포차·리카팀의 소사 구단주는『李源國이 한국내에서만 야구선수로 활동하는데 동의한다』고 李源國의 활동무대를 제한했다.

中央高를 졸업한 李源國에 대해 MBC와 OB가 공동연고권을 갖고있으나 OB는 MBC의 공식요청이 있을경우 李源國의 MBC입단에 동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멕시코국적의 李源國이 외국인선수로 취급될경우 나머지 4개구단들로부터 MBC입단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년 在日동포선수계약을 張明夫 朱東植 李英求 金茂宗등 4명으로 종결지은 종전 실행위원회결의도 李의 MBC입단에 장애가 되고있다.

533－2361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2局總譜 (각5시간·덤5집반) 240手完

白(7段) 河燦錫〈1勝2敗〉

黑(6段) 徐能旭〈1勝2敗〉

徐6段 첫승리

【黑半집勝】실로 아슬아슬한 종국이었다. 白이 약간 남는 바둑이었는데 종반 잡혀내기에서 패착을 범하는 바람에 골인직전 추월을 당한꼴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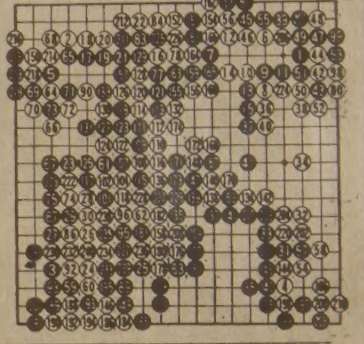
이것으로 河7단은 3패를 기록, 어쩌면 나머지 2국의 승패에 관계없이 시드組에서 탈락할지 모르게 되었다. 비록 그렇지만 여기서 상실한것은 못되고 체면을 보아서도 3승3패, 반반의 성적은 올려야 할것같다. 한편 가까스로 첫승리를 거둔 徐6단도 2패의 선을 넘기지 말도록 남은 3국에서 더욱 분발해야 할것이다.

이바둑은 좌변白64에서 발생한 패싸움이 불만했다. 黑는 결국 黑105로 잇게되었는데 이에 앞서 白104로 125자리에 끼워 잇지않은 아쉬움은 있었으나 잡혀내기 때까지 白의 승리는 부동인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黑151이하를 당한것이 억울했는지 갑자기 白158쪽에서 반발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순간 黑은 159이하 165, 다시 167이하 175로 白집을 줄이고 黑집을 지켜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白158은 냉정하게 163자리를 막아두었어야 반집역전패를 모면할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白184를 188에 젖혀 黑189때 白198이면 약간 유리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76·82·88·94·100…64 패. 79·85·91·97·103…73 패. 105…64이음. 196…193이음. 【一凡】



땅끝에서 오다
한권의 책 ⑥ 金成一 <15>

『그게라니?』

준호는 계속해서 출구쪽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나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읍니다』

『뭐야?』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읍니다』

영락없이 지사장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자네 또 공항에 늦게 도착한 거 아니야?』

좀 야비한 질문이었다. 비록 한시간 넘어서 사무실을 출발하기는 했지만 도착시간인 세시 이십분보다 늦게 왔다면 중간에 어디서 딴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서류를 휴대하고 있다는 이 세원 그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치미는 화를 참고 말했다.

『지사장님, 공항에는 충분히 일찍 도착했읍니다. 어쨌든 죄송하지만…에어라인 가이드에서 파리발 동경행 비행기가 오후 한시전후해서 어떤것이 또 있는지 좀 봐 주시지 않겠읍니까?』

『아니, 승객 명단도 확인 안해봤어?』

『승객 명단에는 분명히 이부장의 이니셜이 있었읍니다. 하지만 혹시 보딩패스를 받고도 비행기를 안 탈 수가…』

『이 사람아, 정신나간 소리 말아.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순간, 준호의 머리속으로 퍼뜩 이상한 생각이 스치고 있었다. 그 누런 반코트의 사나이. 그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던가.

『지사장님,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린 것만 좀 가르쳐 주십쇼』

『기다려봐!』

지사장의 음성은 어지간히 부어 있는것 같았다. 그 반코트의 사나이는 말했었다. 보딩패스를 받고나서 비행기를 못탄사람의…

『이봐! 메모하라구!』

지사장의 [illegible] 소리였다.

『네, 지사장님』

『샤를·드골공항발이면 오후 세시에 JL426이 있어. 404는 투스톱이고 426은 원스톱이기 때문에 도착은 거의 같은 세시 삼십오분이야』

『그 이후는요?』

『그 이후는 코넥손뿐이야. 그것도 오후 일곱시 이후고』

『오후 한시 직전에 출발하는 것은 어떤게있읍니까?』

『열두시 삼십분 SK562가 있군』

『SK라면 스칸디나비안 에어라인 아닙니까?』

『음, 세시 이십분에 코펜하겐에서 SK989로 갈아타게 되어있어. 도착은 오늘 세시 삼십분』

『어쨌든 좀 더 기다려 보겠읍니다』

『잘 모시고 와야해!』

전화는 찰칵 하고 끊겼다. 준호는 다시 JL426는 양쪽 다 없었다. 그는 다시 반코트 사나이의 말을 생각해봤다. 그렇다. 그는 비행기를 못탄 손님의 집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얼른 출구쪽으로 다가가서 사면을 둘러보다가 잽싸게 문안으로 들어섰다.

張吉山 <1698>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58)

정만일이 잔을 들면서 말하였다.

『홍길동과 임꺽정의이름을 빌어 맹세한다. 서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함께 한다』

나중에 시동이가 그가 중얼거린 말 가운데 길동과 꺽정이란 또 무어냐고 물으니, 정만일은 기순 일대의 난전 무뢰배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맹사(盟辭)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시동이도 소시적에 노인들의 한담 가운데 여러번 들었으며 나중에 경강이나 배오개의 봉놋방에서 투전을 벌이거나 술 한잔 먹으며 옛말삼아 나오는 얘기들을 들었던 터였다.

『해서 대적 장길산이는 아는가?』

시동이가 모른척하고 물으니, 정만일은 더욱 알은체를 하였다.

『요즘 길산이 이름 모르는 자가 어딨나. 관군이 구월산을 이 잡듯이 토포했어도 못잡았는데. 금강산에서 수도하여 축지법도 쓰고 신변(神辨)을 부린다더군』

시동이가 황회와 원태에게 들어서 길산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정만일은 한숨 쉬어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손바닥만한 땅 덩이에서 티끌 보다두 못한 몇명의 벼슬아치들이 저희만 살아야겠다고 어르고 쥐어짜고 지랄들이니, 이제는 찍소리라도 지르고 가야할 판이야. 우리도 예전 선조기축사론의 팔촌까지 적몰되어 대동계(大同契) 나리 때에 간신히 사간으로 피했던 집안 자손이지만 모두 부지런하여 근근하게 살아왔다. 우리 골살이 사는 대성이두 우리 먼 친척뻘인데 궁장토의 작인으로 포함이 되지. 그리구 내가 언제 얘기했지? 청송(靑松) 사는 호편이 언니는 내 사촌인데 나보다 한살 위지. 그 곱서 어린아이도 잘아는 장사야. 호마를 들어 던졌다니까. 옛날처럼 국란이 있었드면 벼슬을 하여 이름난 장수 노릇을 했을걸세』

시동이는 진작부터 경계의 계주 노릇을 하는 정원태와 정만일을 만나게할 작정이었으나, 삭녕의 일이 채 끝나지 않아서 추석을 넘기고 말았던 터였다. 정만일의 집은 백호천 건너 마전(麻田)서 오는 길가에 있었으니 읍내의 서쪽 외곽인 셈이었다.

그들은 만일의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들에서 손짓하는 그를 만났다. 그는 한참 나락을 베는 중이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두레 일을 거드는 참이었다. 시동이가 말하였다.

『허허, 내가 본시 농투산이면서 행상으로 떠돈지 오래되어 농번기를 몰라봤구먼』

『농번기가 따루 있어? 땅파먹구 사는 놈들이 늘 바쁘지. 이거 어쩌나 동동팔월이랬으니 자네들도 일복 터졌군』

『뭐 잘되었소. 보아하니 결속(結束)일인 모양인데 부숙비라도 내렸다가는 낭패 아니오?』

정만일이가 원태를 바라보고는 다시 시동이에게로 눈길을 돌리니,

『우리 대덕님일세』

인사를 시켰고 정만일이가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절하였다.

『존함은 여러번 들어모셨읍니다. 먼저 올라가 기십시오』

『아니오. 기왕에 여기왔으니 오랫만에 들일 좀 해봅시다』

정원태와 시동이는 만일이네 두레 사람들과 더불어 추수하는 일을 도왔고, 저녁에 볏단을 묶어 논두락에 널어놓고 돌아올 제는 이미 서로 겸불을 떡어주는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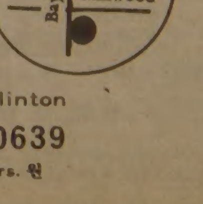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Bridal Fashion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문의 533-2361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웰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초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우문원

운 동 구 점

브램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IN KYU KIM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출퇴근하시면서 2개월된 아기 봐주실분 구함.
Weston Rd×Lawrence Ave. W. 지역
전화 : 245-8765 Mrs. 정

30대 애기없는 서양부부가 한국 애기를 입양하고 싶어함.
애기가 어릴수록 좋고 애기를 사랑함.
전화 : 533-0374 Jeri Vrieze

가게 헬퍼구함
2887 Dundas St. W.(keele St. 에서 한블록 서쪽) 내방원함.

경험 있는 여자 풀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925-0339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Sudbury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83-3391 Mr. 김

입주하셔서 가사와 아기 돌봄 가정부 구함.
457-9570

파트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전화 : 488-1634

풀타임 웨이트레스와 주방헬퍼 급구
전화 : 536-0290

Store helper full-time(입주)과, part-time 독신남자.
살림돌보며 가게일 봐주실 50대(입주) 아주머니
연락주세 요.
가게 전화 : 690-6572
주소 : 2038 Queen St. E. Toronto, M4L 1J4

웨이트레스 1명구함.
전화 : 532-2727

그래픽코스를 수료했거나, 소질있으신 분 구함.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전화 : 251-9587 크로바프린팅

입주하셔서 두아이(5살·7살) 돌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실 할머니 구합니다.
전화 : 487-8665(오후 5시이후 전화요망)

도넛츠 가게 일하실분 구함. Midnight 풀타임 또는
주말 파트타임. 다운타운 또는 West 지역
전화 : 222-3877

입주하셔서 가사와 애기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266-6355

베커스토아 헬퍼구함. 밤11시~아침7시. 경험있고 영어좀
할 수 있는 분. 261 College St. Tor.
전화 : 979-2545(B). Mr. Gus Doudoumis

당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경험있는 Tire Salesman과 비서를 구하고 있음.
단, Canadian Citizenship 소유자라야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Kum Ho Canada Inc.
전화 : 224-2491 (Mr. 박)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구함.
전화 : (R)282-6223
(B)839-8438

캐네디안 식당에 주방헬퍼 구함.
전화 : 621-3731 (Mr. 김) Etobicoke지역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1-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경험있는 커피숍 카운터 헬퍼구함.
전화 : 438-0403 Mrs. 숙

일본음식점 풀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960-9035. Katsura Japanese Restaurant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쎄일즈하실 분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개인지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매 매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447-6955 Mr. Lee

가정사정상 그로서리 가게를 팔고자함
주매상 $4,000 956 Brimorton Dr. Scarboro.

버라이어티, 기프트스토아 매매
주매상 $7,000. 아스킹 $10만5천(짧은 시간)
(로타리오 머신외 수입) 전화 : 223-8805 Mr.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침 9시-밤 10시.
전화 : 222-3109

Chicken & Pizza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좋은조건에 양도함.
아스킹 $20,000+장비 물게지. George Town.
전화 : 1-873-1603 Mr. 최

Baskin Robbins Ice Cream 급매
Oakville에 있는 간편하고 안정된 비지네스.
주위환경이 좋은 큰 쇼핑 Mall에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문닫음. 한주인이 6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 10년.
권리금: $35,000+Equipment(6만불) (조정가능함)
전화 : 월-금 827-0995(11AM~5PM) 토·일 827-7057 Mr. 최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5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좋은 투자의 기회! 13개 배출러. 리노베이트된 벽돌건물
Semi. 다운타운 U of T. 아파트 있는 빌딩. 가구있게 지어졌음
파킹 2개씩 있음. W. H. Bosley Co. -Percy 전화: 486-5777

79년 밤색 VOLVO 스테이션·웨곤 245DL.
AM·FM 카세트. 컨디션 좋음. 가격: $4,900
전화 : 767-5080 Mr. 리

밀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Yonge & Steeles
전화 : 222-3299 Frank

잘 손질된 야마하피아노 팝니다.
전화 : 652-0370 774 St.Clair Ave. W.

Gift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짧은 시간(9AM~9PM). 주6일. 좋은 이윤.
로타리오+티켓(월수입 $1,000이상). 년매상 14만불.
렌트 $700. 아스킹 $59,000(스타포함)
전액 Cash 원함.
2438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94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
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
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 세놓읍니다.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2베드룸과
1베드룸.
전화 : 365-1489(낮) 493-9599(저녁5시 이후)

1 Bed Room 아파트 써브렛
월 $330. 105 West Lodge(랜스다운×퀸)
전화 : 531-5828 Mr. 김

전세(Semi-Det. $650)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
전화 : 282-0236, 461-2771, 968-6284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
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
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현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쇠·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덴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이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바이킹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미스 KOREA 캐나다 대회

1983 MISS KOREA

6월하순 토론토에서 열리는 이민족제전 캐라반행사의 일환

83년 4월 23일·토 오후 6시

힐튼·하버캐슬 호텔

◆1회 박승애 ◆2회 이희영 ◆3회 차명순 ◆4회 김계숙 ◆5회 박혜라 ◆6회 허윤정 ◆7회 함승희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3년 4월17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 이브닝드레스, 한 복
●문 의 처 : ○토론토·한국일보사(416－533～2361)
□몬트리얼／정관성 지국장 672－8399(R)
□오 타 와／이태은 지국장 722－6133
□런　　던／강상권 지국장 681－6925(R) 432－5931(B)
□위 니 펙／이하영 지국장 284－7957
□에드몬톤·캘가리／유인형 지국장 462－2547
□뱅쿠버／유영호 지사장 438－6810

1983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파운드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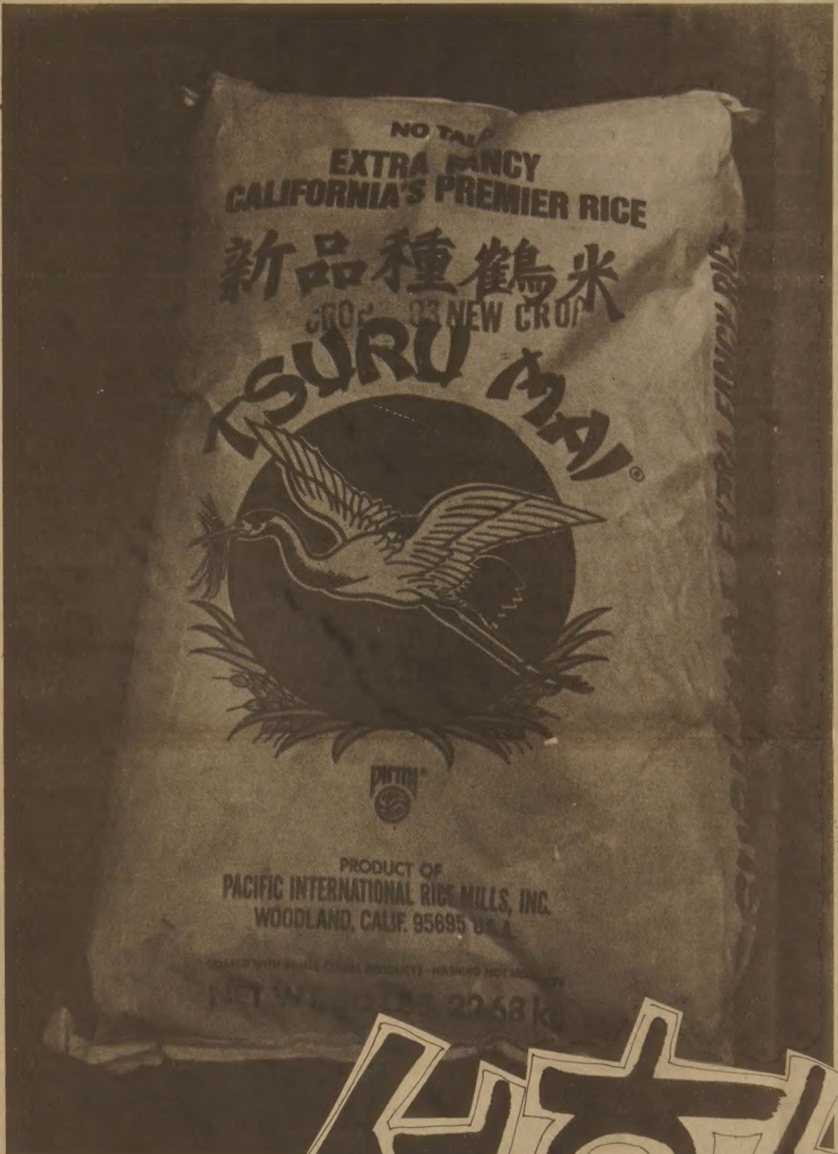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 한인연합회 토론토한인회, 영사관

금성 Co.

금주의 스페샬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고자 **굴비용 햇조기**를 대량 입하 했읍니다.



최고인기의 **쌀** **선학**표

50LB **$13.95**

- 햇조기 $39.90 Box당(33Lb.) (1인당 1BOX에 한함)
- 오징어 89¢ Lb. 당
- 삿뽀로라면 $7.95 Box(24개)당
- 가도야참기름 $7.95 1갈론
- 고추장용 $3.75 한국특산 고운 고추가루 Lb당
- 해태CO. 특제 찹쌀고추장 2.2Lb $3.95

판매처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울식품 서부	243—9544	1391 WESTON RD.
해밀톤	1—385—1485	128 BRUCEDALE AVE. E.

수입원 : 금성 Company Ltd.

한밭식품 스페샬
*오렌지(88개) $12.95
*사과(88개) $15.95
상자당